

2023 공동 심포지엄

가족과 동행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과 가족정책의 향후 과제

일시 2023. **10. 13.(금)** 14:00

장소 스페이스 살림 다목적홀

프로그램

2023 공동 심포지엄
가족과 함께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과 가족정책의 향후 과제

개회사 및 축사

사회: 신유경(서울시가족센터 사무국장)

14:00-14:15	환영사	: 홍우정 (서울시가족센터장)
	축사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축사	: 이승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이사장)
	인사말	: 정연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말	: 박형수 (서울연구원장)
	인사말	: 송혜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회장)
	인사말	: 진미정 (한국가족정책학회 회장)

기조발표

14:15-14:30	2023 서울가족의 탄생 및 양육 이재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

주제발표

좌장: 홍우정(서울시가족센터장)

14:30-15:30	1. 서울시민의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인식과 수요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2. 서울시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3. 서울형 다문화가족사업 연구 고선강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 가족정책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종합토론

15:30-16:30	안현미 (돌봄정책&젠더연구 소장)
	이나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성희 (여주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한은주 (강북구가족센터장)
16:30-17:00	질의응답 및 폐회

환영사

2023 공동 심포지엄

가족과 함께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과 가족정책의 향후 과제

안녕하세요,

2023년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울시가족센터장 홍우정입니다.

먼저 심포지엄을 함께 준비해주신 서울연구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가족정책학회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기조 발표를 해 주시는 이재림 교수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안현찬 연구위원님, 이선형 연구위원님, 고선강 교수님, 진미정 교수님과 더불어 토론으로 함께 해주시는 안현미 돌봄정책&젠더연구소장님, 이나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박사님, 김성희 여주대학교 교수님, 한은주 강북구 가족센터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 2023년 공동 심포지엄의 주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과 가족정책의 향후 과제”입니다.

서울시는 점차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워지고 신혼부부는 귀해지고 있으며, 평균 가구원 수는 2명 내외에 불과하고, 결혼을 할지, 말지 유보하는 청년들의 수도 급증하여 혼자 사는 가구 수는 서울 전체 가구 수 중 38.2%로 가장 많습니다. 서울의 가족 환경이 다 각도로 변화되는 가운데 서울시민들은 여전히 “가족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번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서울 가족의 탄생 및 양육을 고찰하고, 그 대안으로 가족에게 어떤 돌봄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저출산 대응 노력은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양육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지지받고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하는데 유의미한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역시, 결혼 전 예비부부의 단계에서부터, 신혼부부, 아동청소년기 부모, 아빠돌봄까지 전 생애주기를 통틀어 가족을 구성 함에 있어 양육자들의 희생과 수고를 지지하고 지원하며 가족 위기를 예방하고 가족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 심포지엄을 계기로 저출생 대응과 가족정책에 대한 해답을 얻고, 향후 서울시 가족정책이 저출생에 대응한 서비스로ダイナミック하게 연결 되어 서울시민들이 정책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는 공감으로 이어져 서울시의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웃음 꽃이 활짝 피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포지엄이 가족정책 발전을 위한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서울시가족센터장 홍우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어려운 걸음 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분들, 공동 주관 기관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양성평등 의제 발굴과 서울시 정책 지원을 위한 사업과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해 왔습니다.

서울시정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하여 올해에도 저희 재단에서는 영유아 및 초등 돌봄 체계의 강화,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 출생률 진작을 위한 난임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뿐 아니라 서울시가족센터와 서울연구원, 그리고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와 한국가족정책학회와 함께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과 가족정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저출생 문제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되는 아젠다로 가족 정책 차원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질 때 보다 구체적인 원인 진단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의 협력으로 서울시 가족정책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시정으로 추진될 방안이 도출되고, 서울시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학계로 확산되어 보다 많은 전문가 분들이 서울시 정책에 의견을 보태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어질 발표와 활발한 토론 과정에서 참석자 분들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 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의 삶과 함께 성장해 가는 서울시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 저출생 대응, 가족 정책 사업과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원장 박형수입니다.

오늘 “가족과 동행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과 가족정책의 향후 과제” 공동심포지엄에 참석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심포지엄을 함께 준비해주신 서울시 가족센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가족정책학회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귀한 시간을 내어 토론에 참여해주신 안현미 돌봄정책&젠더연구소장님, 이나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박사님, 김성희 여주대학교 교수님, 한은주 강북구 가족센터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에는 서울시가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저출생 대응과 가족정책으로, 엄마아빠의 다양한 육아 부담을 줄이고 양육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입니다. 올해는 저출생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난임부부, 임신부, 다자녀, 신혼부부 등으로 대상을 넓히고 저출생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도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노력에 발맞추어 연구원 산하에 2022년 7월 ‘양육행복도시연구그룹’을 신설해, 서울시의 양육, 돌봄, 가족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성과는 곧 정책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체감입니다.

서울연구원은 올해 처음 서울시가족센터와 공동연구 수행 협약을 맺고 ‘서울가족서베이’를 공동 조사하였습니다. ‘서울가족서베이’는 2018년부터 매년 서울시민의 가족생활과 인식을 파악하는 통계 조사로, 서울시민의 정책 인식과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는데 탁월하였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가족서베이로 확인한 〈서울시민의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인식과 수요〉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공동 조사 경험은 학계와 현장, 연구기관의 공유와 협업으로 얻은 성과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욱 다양한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내용의 기초조사로 자리매김하도록 서울연구원에서도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저출생과 가족정책에 대응한 촘촘한 정책 설계와 평가에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공동심포지엄을 주관하신 서울시 유관기관, 학회와 학계 관계자 외에도 일

인사말

2023 공동 심포지엄
가족과 동행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과 가족정책의 향후 과제

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자분들과 학생 여러분들도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이 당면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가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심포지엄이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안녕하십니까, 2023 공동심포지엄을 공동주관하는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회장 송혜림입니다.

이번 공동심포지엄은 가족정책의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여러 기관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는 1996년에 설립된 이후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를 균형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 다양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해 가족자원경영학 분야 연구자들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가족정책의 활성화와 함께 가족자원경영학 연구자들은 관련 법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천적 활동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는 여러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크 라는 과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심포지엄은 학회와 여러 기관들의 협력이 결실을 맺은 하나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학회와 유관기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출발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동심포지엄을 계기 삼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는 가족정책 이슈 발굴, 현장에 대한 지원 등을 주제로 학술대회나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계속 외연 확장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동심포지엄을 통해 저출생, 가족정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된 기관 간 교류와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분석하고 풀어가야 할 여러 가족정책 이슈들이 있습니다. 학문 분야 간, 기관 간의 협력 그리고 이론과 실천의 균형을 통해 가족정책의 실효성과 체감성을 강화시키는 공동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포지엄 기획 초기 단계부터 애써 주신 서울시가족센터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주관하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연구원, 한국가족정책학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관들이 함께 하면서 공동의 주제를 발굴하고 우리가 직면한 현안을 같이 풀어나가는 다양한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학문공동체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회장 송혜림

안녕하십니까?

가족은 언제나 중요한 주제이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서 특히 더 중요한 주제와 정책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지만, 지금과 같은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계속된다면 미래를 장밋빛으로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족센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연구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그리고 저희 한국가족정책학회가 “가족과 함께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과 가족정책의 향후 과제”라는 시대적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은 누구나 원한다면 가족을 이루고, 가족과 함께 평생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과 서비스를 통해 서울시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합니다. 그 중심에 서울시가족센터가 있고, 25개 자치구 가족센터가 있으며,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파트너가 될 때 서울시민의 일상적 행복이 더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한국가족정책학회는 가족정책 연구자들과 현장 실무자들에게 최신 연구결과와 정보를 전달하는 학술적, 실천적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문공동체입니다. 오늘 공동심포지엄을 계기로 서울 가족정책의 발전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한국가족정책학회 회장 **진 미 정**



세션1 기초발표

- 2023 서울가족의 탄생 및 양육 1
 - 서울가족보고서 주요 결과 및 합의
 이재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세션2 주제발표

1. 서울시민의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인식과 수요 17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2. 서울시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29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3. 서울형 다문화가족사업 연구 43
 - 서울시 다문화가족 특성과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중심으로
 고선강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 가족정책 수요 및 만족도 조사 61
 - 가족센터 종사자 관점에서 보는 가족사업 수요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세션3 종합토론

- 안현미 (돌봄정책&젠더연구 소장)
 이나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성희 (여주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한은주 (강북구가족센터장)

기조발표

2023 서울가족의 탄생 및 양육

- 서울가족보고서 주요 결과 및 함의

이재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2023 서울가족의 탄생 및 양육

- 서울가족보고서 주요 결과 및 함의 -

책임연구원 | 이재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공동연구원 | 손서희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보조연구원 | 박지수, 박인숙, 신하은, 윤보라, 이가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2023
 서울가족보고서
 (12월 발행 예정)

- <2023 서울가족서베이>,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분석 결과
- 2018~2023년 <서울가족서베이> 6개년도 시계열 분석 결과

서울가족보고서: 2015년부터 매년 발간



한눈에 보는
2023
서울가족보고서

1장 서울가족의 현황	2장 서울가족의 수용	3장 서울가족의 관계	4장 서울가족의 생활
<p>10여년에 이르러 10대 "젊은층"의 양 증가</p> <p>코로나에 대해 긍정적 반응도 아닌 세대 분기</p> <p>서울지역 10대 "이동적인" 유년층 증가</p> <p>가장 포괄적인 서울생태계 지표 "일자리, 교육비 부담"</p>	<p>사양형, 액티브하고 젊은 밀집 도시</p> <p>서울가족의 "밀집도시적" 주거환경을 증명해 주었다</p> <p>수도권을 넘어선 밀집 주거형 지역</p> <p>밀집 도시적 밀-정밀 교역, 밀집도시적 밀집도시의 변화</p>	<p>가족의 유동성 증 방문객 증가로 인한, 밀집도시의 유동성 증가</p> <p>밀집도시적 밀집도시의 유동성 증, 수도권, 액티브도시, 유동성 증가로 인한 밀집</p> <p>가족, 지역, 밀집도시 "밀집도시적 밀집" 교육, 밀집도시, "밀집도시적 밀집"</p> <p>밀집도시의 유동성 증, 수도권, 액티브도시, 유동성 증가로 인한 밀집</p>	<p>서울의 유년층 증가, "밀집도시" 유년층</p> <p>10대, 20대 서울지역 10대, 서울의 유년층 증가로 인한 밀집</p> <p>서울지역 10대, 20대, 서울의 유년층 증가로 인한 밀집</p> <p>10대, 20대 서울지역 10대, 서울의 유년층 증가로 인한 밀집</p>
<p>서울의 유년층 증가 지표</p> <p>밀집도시적 유년층 증가, 수도권, 액티브도시, 유동성 증가로 인한 밀집</p> <p>서울지역 10대, 20대, 서울의 유년층 증가로 인한 밀집</p> <p>10대, 20대 서울지역 10대, 서울의 유년층 증가로 인한 밀집</p>	<p>서울의 유년층 증가 지표</p> <p>밀집도시적 유년층 증가, 수도권, 액티브도시, 유동성 증가로 인한 밀집</p> <p>서울지역 10대, 20대, 서울의 유년층 증가로 인한 밀집</p> <p>10대, 20대 서울지역 10대, 서울의 유년층 증가로 인한 밀집</p>	<p>서울의 유년층 증가 지표</p> <p>밀집도시적 유년층 증가, 수도권, 액티브도시, 유동성 증가로 인한 밀집</p> <p>서울지역 10대, 20대, 서울의 유년층 증가로 인한 밀집</p> <p>10대, 20대 서울지역 10대, 서울의 유년층 증가로 인한 밀집</p>	<p>서울의 유년층 증가 지표</p> <p>밀집도시적 유년층 증가, 수도권, 액티브도시, 유동성 증가로 인한 밀집</p> <p>서울지역 10대, 20대, 서울의 유년층 증가로 인한 밀집</p> <p>10대, 20대 서울지역 10대, 서울의 유년층 증가로 인한 밀집</p>

〈서울가족서베이〉 조사개요

〈2023 서울가족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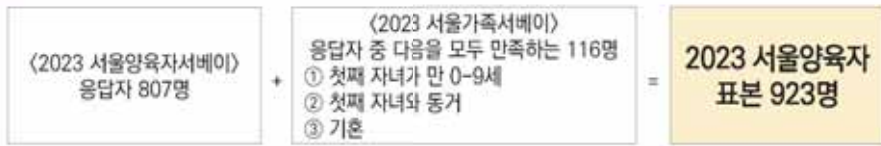
- 조사대상 20-64세(1959-2003년생) 서울시 거주자
- 표집방법 성별 × 연령별 × 거주권역별 인구비례 할당표집
- 표본크기 1,584명
- 조사방법 패널을 이용한 모바일 또는 웹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23. 6. 14. - 6. 23.

2018-2023 서울가족서베이
시계열 표본 특성

- 2019-2023년: 20-64세 서울시 거주자
- 2018년: 25-64세 서울시 거주자
※ 2018년에는 25-74세를 조사했으나, 2023 서울가족보고서에서는 65-74세(48명)를 제외하고 분석
- 표집방법, 조사방법, 조사업체는 6년간 동일함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및 2023 서울양육자 표본 개요

- 조사대상** 만 0-9세 자녀를 둔 20-64세 기혼 서울시 거주자
- 선정조건**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20-64세(1959-2003년생) 서울시 거주자: 〈서울가족서베이〉와 동일
 - ② 첫째 자녀가 만 0-9세: 서울시 「엄마야빠 행복 프로젝트」 지원 대상 자녀 연령
 - ③ 첫째 자녀와 동거: 실질적인 자녀양육 상황
 - ④ 기혼: 엄마, 아빠 모두에 대한 응답을 모두 확보하기 위함
- 표집방법** 자녀연령 × 양육자 성별 × 맞벌이 여부 비례 할당표집
- 표본크기** 807명
- 조사방법** 패널을 이용한 모바일 또는 웹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23. 6. 14. - 6. 26.



5

중요한 가족의 속성: 전체 1순위 및 1-3순위(2021-2023년)

- 서울시민에게 가족의 속성 중 '혈연관계'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심리적 유대'의 중요성은 증가



주: 각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임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6

서울시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2013-2022년)

- 2022년 기준 서울시 총 혼인 건수 35,752건, 조혼인율 3.8건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서울시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지속적 감소



주: 조혼인율은 1년간에 발생한 총 혼인 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 연앙(7월 1일)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 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결혼에 대한 태도: 전체 및 성별, 결혼여부별(2018-2023년)

- '독신(비혼)으로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서울시민의 동의 수준은 보통보다 미세하게 높은 수준(범위: 1-5점)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결혼에 대한 태도: 전체(2018-2023년)

- 결혼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태도가 증가하는 경향

단위(%) 독신(비혼)으로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9

결혼의향: 전체(2023년)

- 20-30대 비혼(미혼) 서울시민의 65.4%는 결혼할 의향이 '대체로' 또는 '많이' 있음

단위(%)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5명)

10

어떤 경우 결혼의향이 더 있을까?

• 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여성과 남성의 결혼의향 관련 요인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여성	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 긍정적 자녀관 점수가 높을수록 • 일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 현재 교제하는 상대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 긍정적 자녀관 점수가 높을수록 • 일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 현재 교제하는 상대가 있는 경우
<p>▼</p> <p>20-30대 여성은 결혼할 의향이 더 있음</p>	<p>▼</p> <p>20-30대 남성은 결혼할 의향이 더 있음</p>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11

서울시 합계출산율(2011-2022년)

-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 2022년 0.59명 (전국 0.7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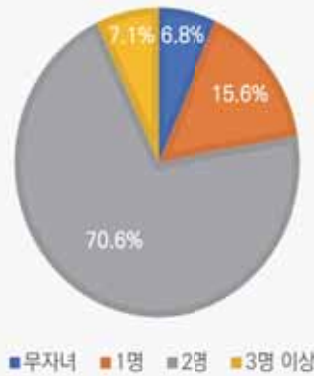


주: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을 의미함
 자료: 1)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2) 통계청 보도자료, 2022 12월 인구동향, 2022

이상적 자녀 수: 전체(2023년)

- 서울시민의 70.6%는 자녀가 2명인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
- 서울시 2023년 합계출산율 0.59명과 이상적 자녀수 2명 사이의 간극

단위(%)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13

부모됨 의향: 전체 및 성별, 연령대별(2023년)

- 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40대 서울시민이 부모가 될 의향(범위: 1-5점)은 보통 수준
※ 참고: 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서울시민의 결혼의향(평균 3.7점)보다 낮음
-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가 될 의향이 더 있음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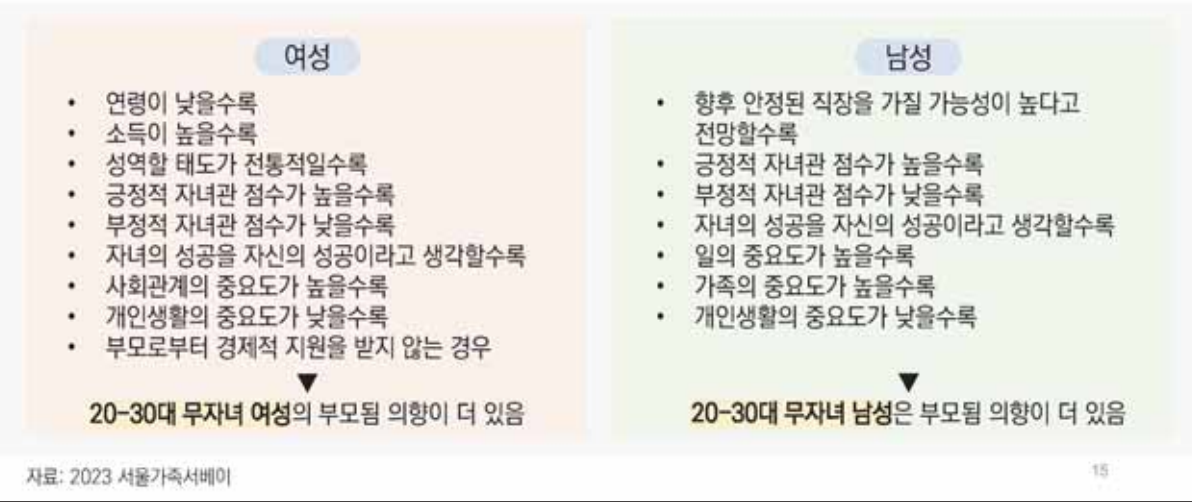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40대 응답자 680명)

14

어떤 경우 부모가 될 의향이 더 있을까?

• 결혼경험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여성과 남성의 부모가 될 의향 관련 요인 중다회귀분석 결과



추가 출산의향: 전체 및 성별, 자녀수별(2023년)

• 자녀가 있는 20-40대 기혼 서울시민이 자녀를 가질 의향(범위: 1-5점)은 낮음

단위(점)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중 현재 기혼이면서 자녀가 있는 20-40대 응답자 1,047명
 ※ [2023 서울가족서베이 &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첫째 자녀 만 0-9세(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 첫째 자녀 만 10세 이상(2023 서울가족서베이 응답자 중 첫째 자녀가 만 10세 이상이고, 이 자녀와 동거 중이며, 현재 기혼상태인 부모 383명)

어떤 경우 자녀를 '더' 가질 의향이 있을까?

- 2023 서울가족서베이 및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응답자 중 기혼이면서 자녀가 1명인 20-40대가 자녀를 더 가질 의향 관련 요인 중다회귀분석 결과

여성	남성	상용직 남성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이 낮을수록 • 결혼지속연수가 짧을수록 •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 부모라서 행복하다고 생각할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이 낮을수록 • 결혼지속연수가 짧을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이 낮을수록 • 결혼지속연수가 짧을수록 • 부부관계 행복도가 높을수록 •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을수록
▼	▼	▼
한 자녀 20-40대 엄마의 추가 출산의향이 더 있음	한 자녀 20-40대 아빠의 추가 출산의향이 더 있음	한 자녀 20-40대 상용직 아빠의 추가 출산의향이 더 있음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17

부모됨 의향 vs. 추가 출산의향 관련 요인

- (자녀가 없는 시민이) 부모가 될 의향
 - 경제적 요인: 소득, 향후 안정된 직장을 가질 가능성
 - 가치관 요인: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 긍정적 자녀관, 부정적 자녀관 등
- (자녀가 하나 있는 부모의) 추가 출산의향
 - 엄마: 부모로서의 행복감, 도구적 자녀관
 - 상용직 아빠: 육아휴직 이용경험, 부부관계 행복도
 - ★ 부모가 된 이후의 긍정적 경험이 중요
 - 경제적 요인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음

- ★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첫 자녀' 출생 지원과 '둘째 자녀 이상' 출생 지원 구분할 필요
 -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지원은 양육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자가 존중 받는 사회환경 및 문화를 구성하는 등 긍정적인 양육경험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

18

효과적인 저출생(저출산) 대응 정책 (3가지 선택, 2023년)

집단	1위	명	2위	명	3위	명
전체 ^{a)}	양육, 교육비	783	경제	607	주거	562
여성 ^{a)}	양육, 교육비	356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322	경제	290
남성 ^{a)}	양육, 교육비	427	경제	317	주거	306
기혼 ^{a)}	양육, 교육비	419	기관 보육·돌봄	278	경제	274
비혼(미혼) ^{a)}	양육, 교육비	327	경제	309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289
무자녀 ^{a)}	양육, 교육비	403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326	주거	307
영아 부모 ^{b)}	양육, 교육비	149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116	기관 보육·돌봄	107
유아 부모 ^{b)}	양육, 교육비	171	기관 보육·돌봄	145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117
초등학생 부모 ^{b)}	양육, 교육비	159	경제	111	주거	109

주: 3개의 응답보기를 선택하는 복수선택 문항임. 무자녀 집단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없는 경우임

자료: a) 2023 서울가족서베이(전체, 무자녀 884명)

b) 2023 서울양육자 표본(영아 부모 284명, 유아 부모 346명,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 293명)

한국사회의 부모 역할 응원: 전체 및 자녀연령대별(2023년)

- 서울시민은 '한국사회는 부모 역할을 응원해 준다'(범위: 1-5점)에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동의
- 자녀가 어리거나, 자녀가 어린 집단의 평균이 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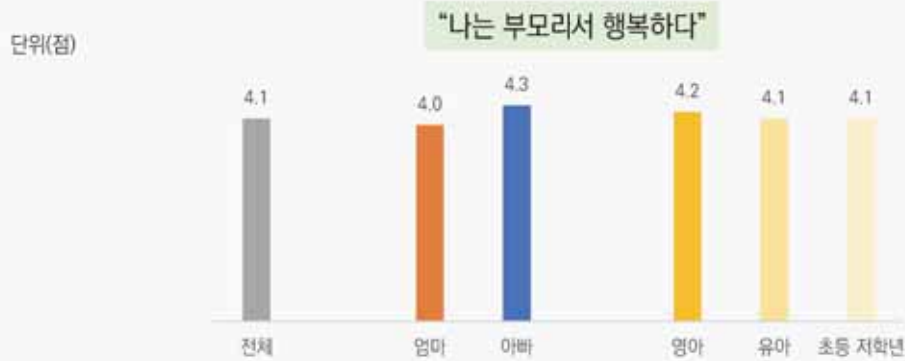
주: 무자녀 집단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없는 경우임

자료: 1) 2023 서울가족서베이(전체, 무자녀 884명)

2) 2023 서울가족서베이 &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첫째 자녀 만 0-9세(923명), 만 10-18세 151명, 만 19세 이상 232명)

부모로서의 행복: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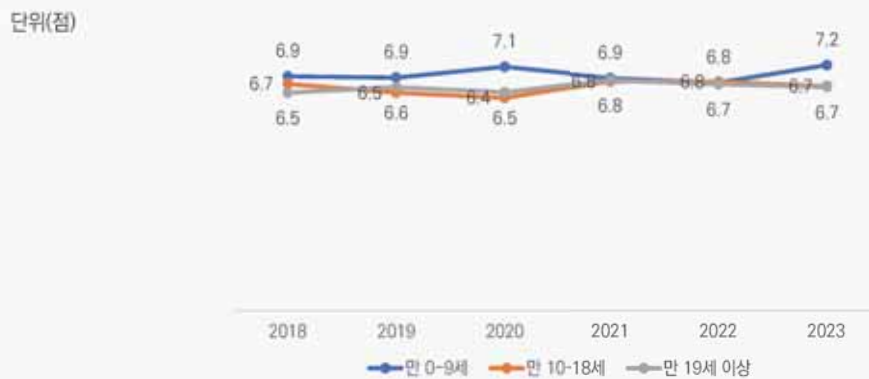
- 서울시 양육자는 '나는 부모로서 행복하다'에 대체로 동의(범위: 1-5점)
- 아빠 > 엄마



주: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 (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가족생활 행복감: 자녀 연령대별(2018-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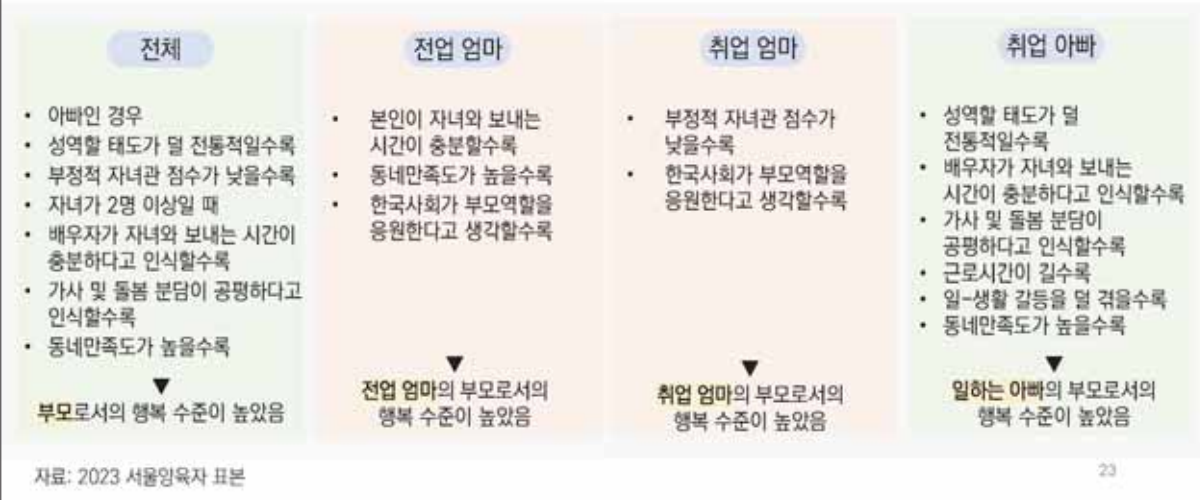
- 첫째 자녀의 연령이 만 0-9세인 서울시민은 첫째 자녀가 만 10-18세, 만 19세 이상인 서울시민보다 가족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낌(범위: 1-9점)



주: 자녀 연령은 첫째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함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자녀가 있는 응답자 2018년 620명, 2019년 844명, 2020년 888명, 2021년 765명, 2022년 773명, 2023년 700명)

누가 부모라서 행복할까?

• 만 0-9세 첫째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로서의 행복 수준 관련 요인 중다회귀분석 결과



부모됨에 대한 후회: 만 0-9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 서울시 양육자는 '나는 부모가 된 것을 후회한다'에 별로 동의하지 않음(범위: 1-5점)
- 아빠 < 엄마

단위(점)

"나는 부모가 된 것을 후회한다"



주: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 (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24

엄마, 아빠의 가사 및 양육 분담: 만0-9세 자녀의 부모 전체(2023년)

- 만 0-9세 자녀를 둔 서울시민 중 가사 등 집안일을 '주로' 또는 '대체로' 엄마가 하는 비율 61.7%
-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주로' 또는 '대체로' 엄마가 하는 비율 71.2%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25

엄마, 아빠의 일-생활 갈등: 만0-9세 자녀를 둔 경제활동부모 전체 및 자녀 발달단계별(2023년)

-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엄마가 '영유아기' 자녀의 엄마보다 일-가족 갈등을 더 경험(범위: 1-5점)
- '유아기' 자녀의 아빠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아빠보다 일-여가 갈등을 더 경험(범위: 1-5점)



주: 1)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돈을 받고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쟁하는 기계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에 '일하였다(1)'로 응답한 부모만을 분석하였음
 2) 일-가족 갈등 5문항, 가족-일 갈등 4문항, 일-여가 갈등 5문항, 일-성장 갈등 5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3) 영아는 만 0-2세 아동의 부모,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초등 저학년은 만 9세 이하 취학 아동의 부모를 의미함(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취업부 214명, 취업부 402명)

26

가족친화 도시: 전체 및 성별(2018-2023년)

- 서울시 가족이 살기 좋은 가족친화 도시(범위: 1-5점)라고 생각하는 서울시민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

단위(점)

“서울은 가족이 살기 좋은 가족친화적인 도시이다”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27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1

서울시민의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인식과 수요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2023 공동심포지엄]
가족과 동행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과 가족정책의 향후 과제

서울시민의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인식과 수요

인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양육행복도시연구그룹장
문진영 서울연구원 연구원



조사 배경 : 서울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추진

엄마아빠의 현실적인 육아부담 감소와 양육자가 존중받는 사회 마련 위한 종합계획 시행

'22.8.18,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발표(4개 분야 28개 사업)

조사 대상

비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목표 1. 엄마-아빠 부담은 줄이고, 행복은 키우고
2. 엄마-아빠의 활기 10년, 서울시가 함께 합니다!

4대 분야 및 핵심과제 (28개)

안심돌봄	남편의이슈	건강지원	일생활균형
육아도움터 및 방문수당 및 육우제	서울영아돌봄부 조성	방문지원 문화 프로젝트	영아돌봄 책임유지사업
출생등록 500 서비스	가족희생감 조성	출산임 및 이음 포털케어	일부 영아 다다 기장 서비스
출생까지 책임지는 서울의 안전망 제고	서울영아돌봄서 운영	서울어제 발달지원 센터	아이 상상력 놀이 지원
관보책 초동돌봄 사업 확충	서울 키즈KIND 오프라인 지원	맞춤형 영아코칭 프로그램 운영	경제안정기반 취업지원센터

서울 영아돌봄 민생안정포털 '민생키움' 구축



'23.8.28,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2.0” 발표(4개 분야 55개 사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정책의 목표 해소 + 복지 정책의 지원 강화

육아 지원 분야	남편의이슈	건강지원	일생활균형	취업지원 분야
출생등록 500 서비스	가족희생감 조성	방문지원 문화 프로젝트	일부 영아 다다기장 서비스	경제안정기반 취업지원센터
출생까지 책임지는 서울의 안전망 제고	서울 키즈KIND 오프라인 지원	맞춤형 영아코칭 프로그램 운영	아이 상상력 놀이 지원	경제안정기반 취업지원센터

조사 개요 : 분석 방법



정책 인식, 수요, 개선의견 등을 양육자-비양육자 비교, 양육자 하위집단별 차이 분석

- (기초분석) 양육자 응답자(923명)와 비양육자(1,468명) 비교 분석
- (심층분석) 양육자를 부모 성별, 자녀 연령대별, 맞벌이 여부 등 주요한 양육 조건에 따른 특성 분석



조사 개요 : 응답자 특성



양육자의 부모 연령은 30~40대가 많고, 비양육자 집단에 비해 가구소득 낮아

- 양육자 집단에서 조부모 또는 친인척 돌봄을 받는 비율 높은 편
- ※ (표본할당) 양육자서베이: 성별, 자녀 연령, 맞벌이 여부 / 서울가족서베이: 성별, 권역, 응답자 연령

구분	내용	양육자	비양육자
응답자 성별	남성	47.5	47.6
	여성	52.5	52.4
응답자 연령	만 20-29세	2.1	23.2
	만 30-39세	49.7	20.0
	만 40-49세	48.0	20.0
5대 권역	도심권	5.4	5.4
	동북권	27.3	30.2
	서남권	13.9	12.5
친족 조력	서남권	32.4	30.6
	동남권	21.0	21.3
	동남권	21.0	21.3
첫째 자녀연령	영아(만0-2세)	30.8	0.3
	유아(만3세이상 미취학)	37.5	0.0
	초등학교 저학년(만6세이하)	31.7	0.0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0.0	99.7
맞벌이 여부	맞벌이	58.4	59.3
	맞벌이 외	41.6	40.7
가구월소득 (가구총수입 기준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	22.0	19.7
	100% 초과 150% 이하	33.8	30.2
	150% 초과 200% 이하	28.1	26.1
	200% 초과	16.1	24.0
친족 조력	조력자 없음	86.1	98.1
	조력자 있음	13.9	1.9

기초분석 : 4대 분야별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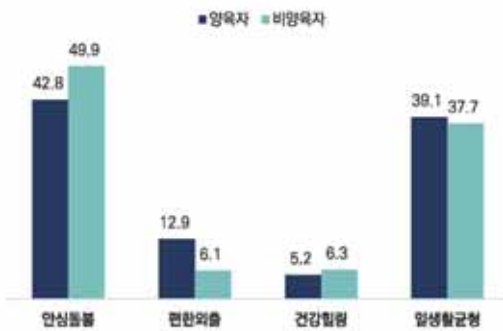


안심돌봄, 일생활균형 분야 수요 높고, 편한외출, 건강힐링 분야 수요 낮아

- 분야별 수요는 안심돌봄(43/50%), 일생활균형(39/38%), 편한외출(13/6%), 건강힐링(5/6%) 순
- 전통적인 가족/양육 정책 분야에 비해 도시공간, 교통, 문화, 정신건강 등 신생 정책 분야에 대한 인식과 수요 아직 낮아

0-9세 아이를 키우는 서울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율: %)



분야	설명
안심돌봄	"함께 키우고 믿고 맡길 수 있어 더 안심되도록" 아이돌봄비 지원, 긴급/일시돌봄 확대, 공공 키즈카페/보육시설 확충 (돌봄 서비스/시설 분야)
편한외출	"아이와 함께하는 나들이가 더 즐겁도록" 실내외 문화여가시설에 양육자 전용 공간/가족확장실/가족우선주차장 조성, 전용 택시서비스 도입, 아동친화식당 지정공간/교통 분야
건강힐링	"엄마와 아이의 몸과 마음 건강까지 꼼꼼하게" 심리도움 문화행사 개최, 출산후 몸/마음 건강 케어 운영, 맞춤형 양육코칭 지원 (문화/건강 분야)
일생활균형	"아이 키우며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육아유형성격권, 가사서비스, 경력보유여성 취업 등 지원(노동/가사 분야)

5/19

기초분석 : 안심돌봄 분야 세부사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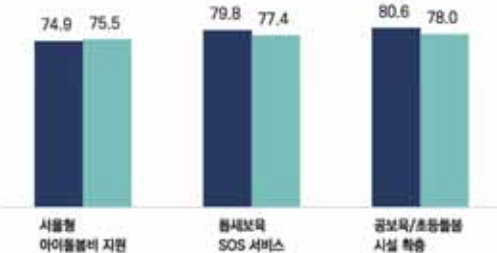


돌봄시설 확충, 틈새보육 서비스, 아이돌봄비 지원 순, 모든 사업 수요가 높은 편

- 양육자 기준으로 돌봄시설 확충 수요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모든 세부사업 필요도가 75% 이상으로 높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양육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수요(81.8%)가 상대적으로 높아

안심돌봄 분야에서 각각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응답의 합 (비율: %)



세부사업	설명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양육 공백(맞벌이 등)에도 공공 돌봄 사업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만 2세 영아 양육자에게 청인가액이나 민간 케어비지원 상당 지원(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틈새보육 SOS서비스	긴급, 틈새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어른아이 일시돌봄/병원공명 서비스 신설, 어린이집 운영시간(야간/휴일) 확대 및 0세 전담반 운영, 초동성 긴급/일시 돌봄 강화, 등하원/영아 전담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공보육/초등돌봄 시설 확충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확충(공보육 비중 71.1% 목표), 우리동네키움센터/지역아동센터 확충(314/155개소 목표)

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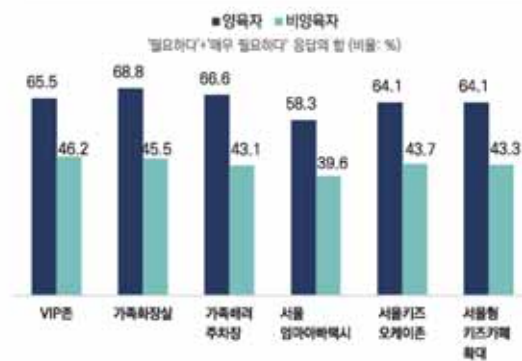
기초분석 : 편한외출 분야 세부사업 수요



다른 분야에 비해 전체 세부사업 필요도가 낮은 편, 양육자-비양육자 차이도 가장 커

- 양육자는 모든 세부사업 수요가 60% 안팎인데 반해, 비양육자는 전체적으로 50%에 못 미치는 큰 인식 차이 확인
- 외출이 가장 힘든 영아(0~2세) 양육자의 <VIP존>(72.5%), <엄마아빠택시>(72.5%)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편한외출 분야에서 각각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사업	설명
서울엄마아빠 VIP존 조성	문화시설, 공원, 시장 등에 양육자가 존중받고 편안하게 아이를 돌보고 할 수 있는 전용공간 조성
가족화장실 조성	공공장소에 아이 동반 가족을 위한 가족화장실 설치 확대
가족레리주차장 조성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 주차면을 임신부, 영유아, 노인 동반 가족을 위한 주차면으로 전환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영아(만 2세 이하) 양육기구 외출 지원을 위해 연 10만 원 전용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
서울키즈 오케이존 지정	노키즈존에 대응해 아이와 양육자를 환영하는 음식점을 서울키즈오케이존으로 지정 및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특별 전달인력이 배치된 공립 키즈카페를 행정동당 1개소씩 조성

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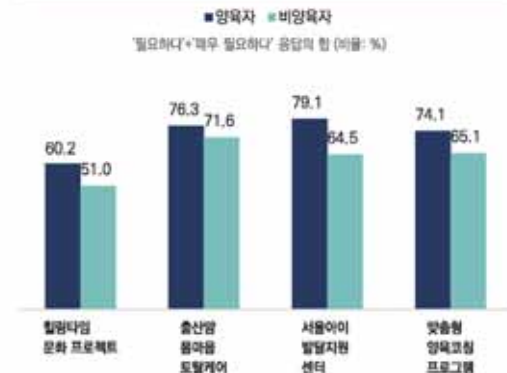
기초분석 : 건강힐링 분야 세부사업 수요



건강에 비해 문화 분야 세부사업 수요가 양육자, 비양육자 모두 낮아

- <힐링타임 문화프로젝트> 수요는 양육자, 비양육자 모두 가장 낮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수요는 양육자-비양육자 차이 커
- 영아(0~2세) 양육자가 초등 저학년 양육자에 비해 <출산맘 지원>, <맞춤형 양육코칭 프로그램> 수요가 더 높아

건강힐링 분야에서 각각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사업	설명
힐링타임 문화 프로젝트	출산과 양육에 지친 양육자를 위한 전용 문화프로그램, 엄마 첫출발 책서비스, 가족친화형 축제 운영 및 지원
출산맘 용마음 도맡케어	출산 후 빠른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운동/식사), 마사지 및 산후 우울증 관리 서비스 제공, 산후건강관리 도우미 파견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	미디어 과노출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려지는 영유아의 건강한 정서 및 뇌 발달을 지원하는 센터 개소
맞춤형 양육코칭 프로그램	육아전문가 양육 코칭,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운영으로 부모 맞춤형 솔루션 제공과 정서 안정 지원

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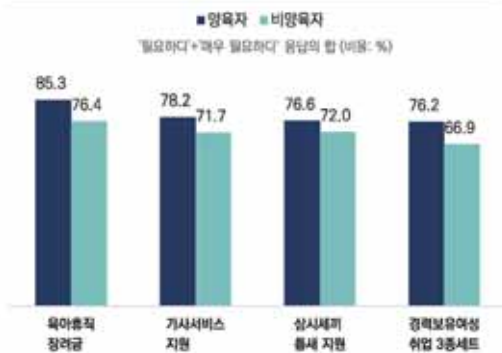
기초분석 : 일생활균형 분야 세부사업 수요



모든 세부사업 수요가 높은 편, 육아휴직장려금은 전체 분야에서 가장 수요가 많아

- 양육자의 모든 세부사업 수요는 75% 이상으로 높고 비양육자와의 차이도 적은 편(〈육아휴직장려금〉은 28개 사업 중 수요 최고)
- 양육자 여성은 〈가사서비스〉, 〈삼시세끼〉, 〈취업3종세트〉 수요가, 홀벌이 양육자는 〈취업3종세트〉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일생활균형 분야에서 각각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사업	설명
육아휴직 장려금	남녀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120만 원(12개월 기준) 지원(총 3.4만 명 지원 목표)
가사서비스 지원	임신부/산후/다자녀 가정의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총 6회, 4시간/회, 총 5.2만 명 지원 목표)
아이 삼시세끼 통세 지원	아이가 결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자녀, 키움센터 방학 중 점심 지원, 편마침과 협약해 도시락/일키트 합인
경력보유여성 취업 3종세트	구직활동지원금(월 30만 원X최대 3개월), 현장실습(인턴십) 비용 및 취업 연계, 1년 이상 채용한 기업에 고용유인지원금(월 100만 원X3개월) 지원

9/19

기초분석 : 적절한 지원 연령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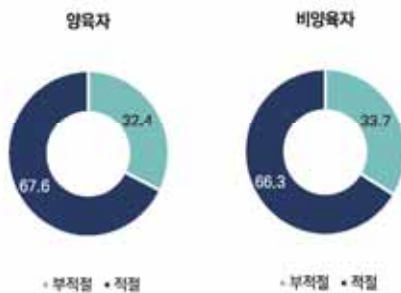


지원 연령 범위(0~9세)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70%에 가까워 공감대 존재

- 0-9세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양육자 67.6%, 비양육자 66.3%, 전체 66.8%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
- 개선 의견은 〈태아~초등학생〉(48/33%), 〈초등학생〉(26/29%) 순으로 초등 고학년 포함 검토 필요

지원 연령 범위(0~9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율: %)



적절하지 않다면, 적절한 지원 연령 범위를 선택해주시오(연속선택)

(비율: %)



10/19

기초분석: 적절한 소득 지원 기준



현재 소득기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0%대로 낮고, 상향 또는 삭제 의견 많아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양육자 51.4%, 비양육자 56.2%로 재설정을 위한 논의 필요
- 개선 <소득기준 삭제>(55/38%), <150% 보다 높게>(34/32%)가 많아 현행 기준이 서울 현실에 비해 낮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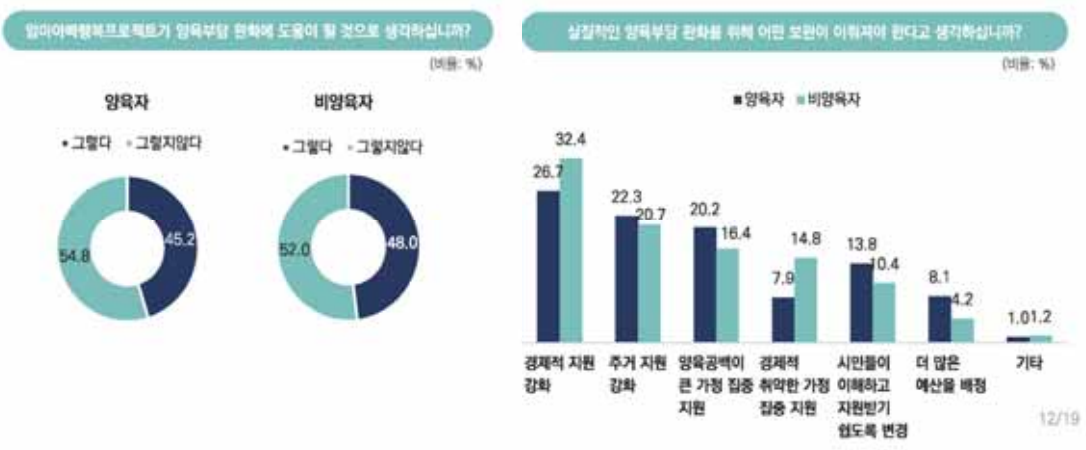
11/19

기초분석 : 정책 기대와 수요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는 50% 이하, 가장 필요한 보원은 경제 및 주거 지원 강화

- 보원이 필요한 지원 분야 1순위는 소득, 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 2순위는 <주거 지원>
- 영아(0-2세) 양육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양육자는 <양육공백 가정 집중 지원>을 1순위로 꼽아



12/19

심층분석 : 양육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비교 분석 시도



13/19

심층분석 : 양육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비교 분석 시도



14/19

심층분석 1 : 응답자 성별(엄마/아빠) 비교



주양육자인 엄마의 정책 민감도가 더 높아, 전체와 여성 응답 함께 살펴야

- 여성(엄마)의 수요가 남성(아빠)보다 10%p 이상 높은 세부사업이 7개이고, 4개 분야 모두에 걸쳐 있어
- '이 정책이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7.8%p, '정책을 이해하고 지원받기 쉽게 개선해달라'는 7.6%p 더 많아
- 주양육자 경험으로 정책에 대한 관심과 민감도가 높아, 여성 응답을 정책 설계와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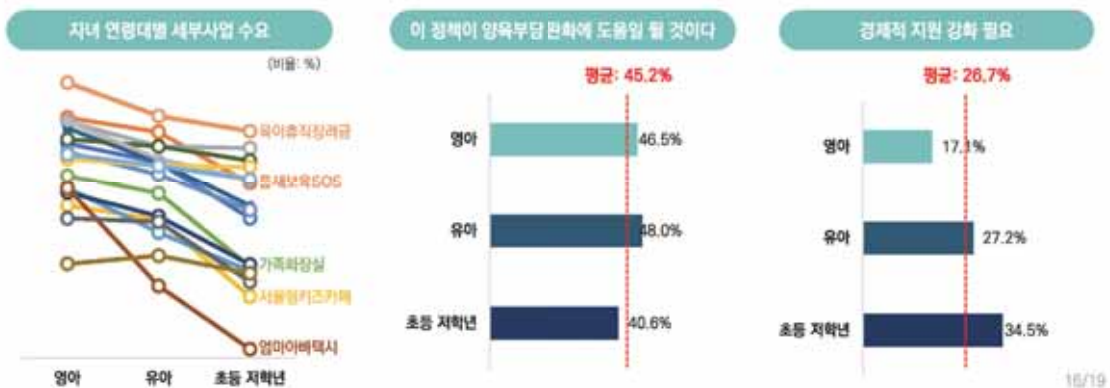


심층분석 2 : 자녀 연령대별(영아/유아/초저) 비교



초등 저학년 양육자는 정책 수요와 기대가 낮고, 경제적 지원 강화를 요구해

- 자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세부사업 수요가 낮아지고, 초등 저학년 양육자만 '지원 연령이 적절하다'가 절반 이하(49.5%)
- 초등 저학년 양육자는 정책 효과 기대도 가장 낮고(40.6%), <경제적 지원 강화> 요구가 최대 17.4%p 더 많아
- 이 정책이 지원 연령을 0~9세로 설정했지만, 영유아 보육에 비해 초등학생 교육(비용) 지원이 부족하지 않는지 점검 필요



심층분석 3 : 맞벌이 여부(맞벌이/홀벌이) 비교



맞벌이 여부에 따라 선호 분야, 적정 소득기준, 보완의견이 세분화된 대응과 지원 필요

- 맞벌이 양육자는 안심돌봄을, 홀벌이 양육자는 일생활균형 분야사업 더 선호
- 맞벌이 양육자는 소득기준을 150% 이상으로, 홀벌이 양육자는 150%보다 낮게 개선하자는 의견이 각각 더 많아
- 맞벌이 양육자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공백 가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 더 높아
- 가구소득별(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90%초과)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 맞벌이-소득 상관성이 높다고 봐야



시사점과 향후 계획



시사점과 정책 개선 방안

- 정책 수요 : 비양육자의 편한외출, 건강힐링 분야 지지가 낮은 원인 파악, 세부사업 개선, 홍보 전략 강화
- 지원 연령 범위 : 적절하다는 공감대가 높지만, 초등 고학년 지원 수요와 필요성을 살펴 연령 범위 확대 검토
- 소득 기준 : 시민들의 의견이 크고, 전체적인 기준 상황과 함께 소득과 밀접하지 않은 세부사업별 기준 개선을 병행
- 심층 분석 : 자녀연령대, 맞벌이 유무 등에 따라 세부사업의 지원 대상과 내용이 적절하게 설계됐는지 검토
- 신규 정책 개발 : 소득, 주거, 초등생 교육비 지원 등 수요가 높지만 현재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책 개발

서울가족서베이 향후 활용계획

- 서울시 가족 실태 파악을 넘어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 평가 및 개선을 위한 기초 서베이로 확대
- 표본설계 : 양육자 표본 규모 확대,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를 표본설계에 반영
- 조사 문항 : 세부적인 현황 파악(분야별 서울시 양육친화도), 정책 성과(정책 효능감과 출산/양육 관련 의향 변화) 관련 문항 개발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2

서울시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2023 공동심포지엄 [10.13.(금)]
가족과 함께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과 가족정책의 향후 과제

서울시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여성가족정책팀 연구위원



목차

1. 들어가며

2. 서울시 인구·가족 특성 및 정책 현황

3. 가사노동과 돌봄의 성별 격차

4. 남성 돌봄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연구 배경



-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서울시의 가족 영역 성평등지수는 64.9점(전국 13위)으로 낮은 수준
- 이는 전체적인 서울시 성평등 수준을 낮출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출생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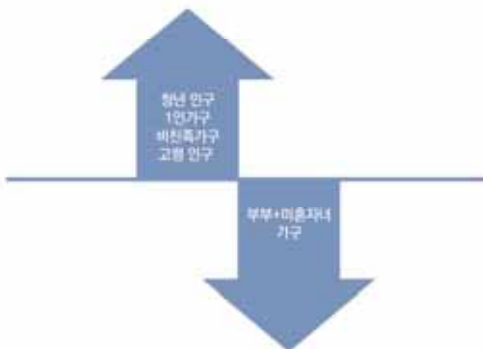
- 서울시의 민선 8기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등은 가족 영역에서의 성평등 수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기존 지표는 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의 다양한 인구·가족 특성은 고려되지 않음

▶ 이에 본 연구에서 양육자의 평등한 돌봄 분담을 비롯하여, 서울시 인구·가족 특성을 고려한 가족 성평등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서울시 가족 성평등 수준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음

서울시 인구·가족 특성



서울시 가족 정책과 성평등

【표 II-6】 서울시 건강가정 시행계획에서의 성평등

영역	과제(사업 수)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1-1.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0) 1-2.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4) 1-3.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 구성원 인권보호(9)
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2-1.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 강화(2) 2-2.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여건 조성(6) 2-3.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7)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3-1. 지역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 지원 확대(7) 3-2.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6) 3-3. 가족 돌봄 지원의 양적·질적 강화(6)
4. 힘에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4-1. 남녀 모두의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1) 4-2. 성평등 돌봄 정책 및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3)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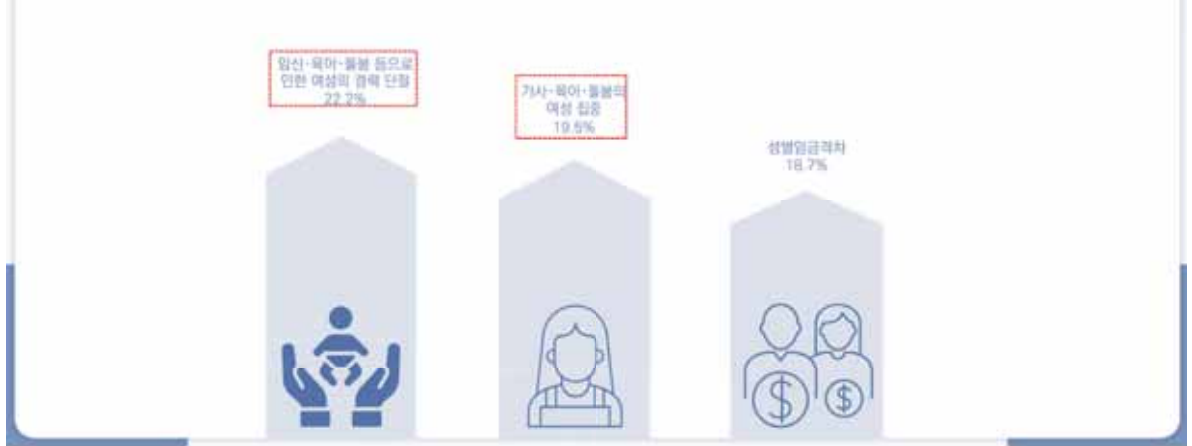
【표 1-1】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목적	서울시 가족 정책의 실행에 대해 우리 조사	
조사 기간	2022년 4월~5월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조사 대상	서울시민 전 15세~64세 시민 2,000명	
	영역	내용
조사 내용	A. 가족 인식	가주주와 세대주 책임, 가족문화(행동규범), 양육 및 양육 지원, 가족 제도, 변화 인식(호주제, 교육청(사립비), 부부공동결정, 공동양육), 가족 다양성 인식, 다양한 가족 화해와 지원
	B. 가사노동과 돌봄	가족 내 시간 활용, 가사노동 부담 및 인식, 이직률, 정부 서비스 지원 활용 인식 등 여가
	C. 가족관계	가족 내 폭력·학대 실태 및 대응, 형사상 자살의 친위와 예방, 성차 갈등 관련 실태와 인식, 이혼 자살의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 가족 간 지원 관계, 친연적인 가족 관계 인식도
	D. 일-생활균형	현재 하는 일, 직장 내 일-생활균형 제도 적용, 통영으로 인한 경력개발 지원 및 현황
	E. 권리 인식	가족 내 성역할, 가족관계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F. 사회적 관여	불의 현상 및 연대할 사람, 지역사회 인식(안전 등)
	G. 정책 수요	가족 생활을 위해(고), 필요, 가족 다양성 존중 관련 정책 수요, 형사상 자살 예방, 폭력·학대 대응 및 예방, 남성 돌봄 정책 활성화 등
	H.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종교, 지역, 직업, 학력, 소득(연입, 가구) 차에 따라, 생활여건

【표 2】 면접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목적	서울시 가족 정책 주요 대상 그룹 심층분석
조사 기간	2022년 5월~5월
조사 방법	1:1 심층 면담
조사 대상	서울시 주요정책대상 그룹에 초점을 두어 모집 - 가족 돌봄 비혼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 가족 내 양자별로 경험한 원수남 - 특수요양보호사(가사)가 있는 가족구성원 - 육아·학대 등 가족 내 갈등 50%가 있는 가족구성원 총 10명(양성분자 5명(남성)에서 3명, 심층면담 1명(여성) 후 10명
조사 내용	돌봄, 돌봄 특성에 따른 돌봄 현황 및 서비스 이용 현황, 가족관계 특성, 관계별 만족도 및 갈등 내용, 그룹과 소속, 가구의 주요 소득원, 생계 부담, 일과 돌봄 자원 현황, 의사 결정, 가족 내 의사 결정 관련, 가족계획 등

가족 성평등 수준 제고: 여성의 경력단절, 돌봄 집중 등 해소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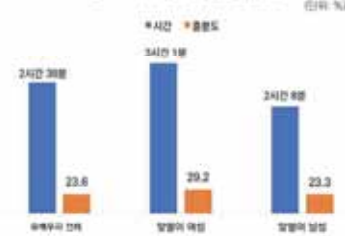
가사노동 시간

- 가족 내 가사/돌봄에 쓰는 시간과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매우 부족+부족한 편')를 가구 경제활동 유형별로 조사함
- 맞벌이 여성이 남성보다 약 46분~1시간 정도 가사노동에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남
- 평일, 휴일 상관없이 맞벌이 여성이 맞벌이 남성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임

그림 1 | 가사 시간 및 충분도(평일)



그림 2 | 가사 시간 및 충분도(휴일)



돌봄 시간

- 자녀 등 가족 돌봄 시간의 경우, 가사노동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투입되었음
- 맞벌이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분~22분 정도 돌봄에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 기준 맞벌이 남성(55.3%)이 맞벌이 여성(49.3%)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임

그림 3 | 돌봄 시간 및 충분도(양일)



그림 4 | 돌봄 시간 및 충분도(휴일)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과 돌봄 시간 부족

그림 5 | 맞벌이 가구의 평일 가사-돌봄 시간 및 충분도(성별)



- 이 같은 결과에서 맞벌이 가구 내 가사노동과 돌봄의 여성 집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가사노동보다 돌봄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은 돌봄을 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가사노동 수행에 대한 인식



-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은 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사노동이 돌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게서 두드러짐
-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가사노동과 돌봄을 더 하고 싶다'는 응답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과 돌봄의 성별 분업에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시간 사용과 가구 소득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돌봄 수행에 대한 인식



-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은 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사노동이 돌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게서 두드러짐
-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가사노동과 돌봄을 더 하고 싶다'는 응답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과 돌봄의 성별 분업에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시간 사용과 가구 소득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가사노동 수행의 어려움

- 가사노동을 할 때 어려운 점으로, '체력 부족(52%)' > '집안일 시간 부족(43.2%)' > '경제적으로 적절한 보상이 없는 것(28.4%)' > '집안일 수행 역량 부족(27.5%)' > '가구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20.4%)' > '경제적 부족(물품 구입 어려움 등)(15.2%)' > '없음(13.2)' 순으로 나타남(1+2 순위 중복응답 기준)
- 여성 10명 중 6명은 '체력 부족'을, 남성 2명 중 1명은 '시간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음
-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없는 것'과 '가구원이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수행과 이로 인한 어려움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음

그림 8 | 가사노동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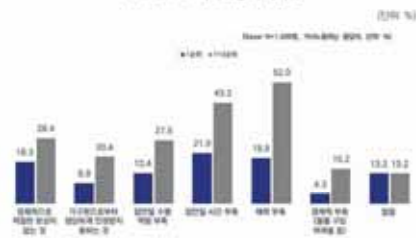


그림 9 | 가사노동의 어려움(성별)



돌봄 수행의 어려움

- 가족 돌봄을 할 때 어려운 점으로, '체력 부족(48.3%)' > '돌봄 시간 부족(40.7%)' > '돌봄 수행 역량 부족(37.9%)' > '경제적으로 적절한 보상이 없는 것(23.4%)' > '경제적 부족(23.0%)' > '가구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19.6%)' > '없음(3.5%)' 순으로 나타남(1+2순위 중복응답 기준)
- 가사노동 수행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여성 10명 중 6명은 '체력 부족'을, 남성 2명 중 1명은 '시간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음
- 가사노동과 돌봄 수행의 어려움을 비교해보면, 둘다 '체력 부족'과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세 번째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보상이 없는 것'이, 돌봄에서는 '수행 역량 부족'이 나타남
- 이로써 가사노동에 비해 돌봄을 상대적으로 역량이 더 필요한 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0 | 돌봄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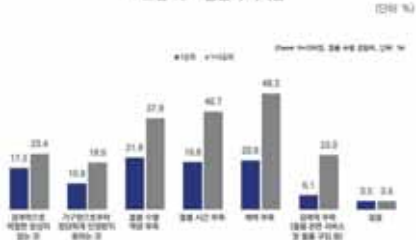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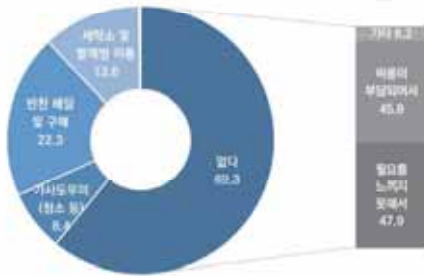
그림 11 | 돌봄의 어려움(성별)



외부 가사서비스 이용

W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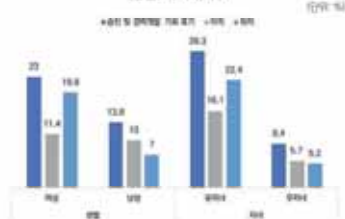
그림 12 외부 가사서비스 이용 경험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시민들은 가사노동할 때 '재력 부족', '시간 부족', '경제적으로 적절한 보상이 없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편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지난 1주일 동안 가정에서 외부 가사노동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음
- 그 이유로는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47.9%)'와 '비용이 부담되어서(45.9%)'가 높게 나타남
- 외부 가사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가구는 유자녀 가구와 맞벌이 가구
-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외부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서울형 가사 서비스 이용자 모집 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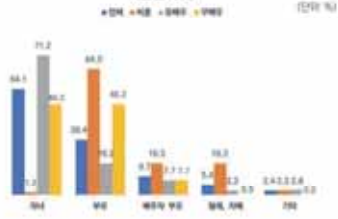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력개발의 지연 및 단절

그림 13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력개발 지연 및 단절 경험 (성별, 자녀 유무)



- 여성이 남성보다, 유자녀 응답자가 무자녀 응답자보다 돌봄으로 인한 경력개발 지연 및 단절을 높게 경험함
- 이 같은 결과는 일과 돌봄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돌봄으로 인한 이직 및 퇴직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승진 및 경력개발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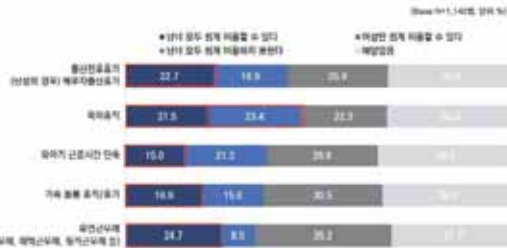
그림 14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력개발 지연 경험 (혼인자위)



- 유배우 응답자는 자녀(71.2%), 비혼 응답자는 자녀(11.2%), 무배우 응답자는 자녀와 부모가 각각 46.2%로 높게 나타남
- 이 같은 결과는 현재 자녀 돌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일·생활균형 제도가 비혼자 및 인부모의 부모 돌봄, 형제·차매 돌봄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돌봄 지원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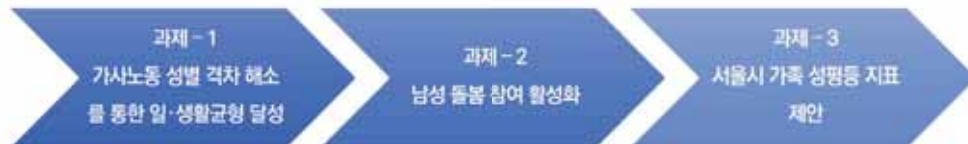
직장 내 일·생활균형 제도 이용

그림 15 직장 내 일·생활균형 제도 이용 정도



- '육아휴직' 항목에서는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육아휴직'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해당없음 제외)
-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응답 기준으로 나열해보면, 유연 근무제 > 출산전후휴가(남성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 육아휴직 > 가족돌봄휴직/유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순임

가사노동과 돌봄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서울형 가사서비스

-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이 가사서비스 이용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뿐만 아니라 가사서비스 사업의 공공성, 효과성, 성평등 가치의 측면에서 사업 추진 성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함. 현재 임신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별로 활용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가구 특성을 고려한 가족상황의 성평등 수준 제고,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사업 추진체계에서 이용자 확인 및 선정 단계에서 이용자 특성에 대한 정보, 그중별 이용 특성 등에 대한 정보 모니터링을 제안

그림 16-1 서울시 가족의 성평등을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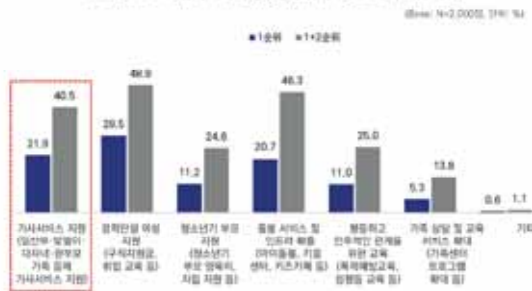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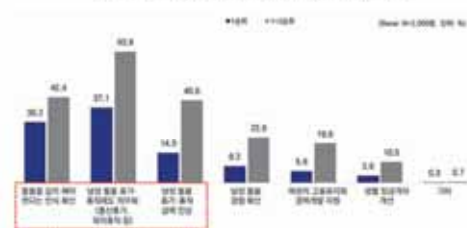
표 1-1 서울형 가사서비스 평가수준 참여인

구분	항목	성인	양육
이용자 확인	- 중위소득 100%이하, 임신부·맞벌이·다자녀 가구 확인		
	- 평가대상 중위소득 검토를 통한 선정자 차기 확인		
	- 주택 동주민센터		
이용자 선정	-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 방안 또는 가족이 활용-성평등 수준으로 인해 가족들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 주택 규모 내에서 우선순위 선정 기준 적용할 경우		
	- 주택 세차선명업제		

남성돌봄 참여 활성화: 직장문화 개선

- 남성 돌봄 휴가·휴직 제도 의무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현재 일-생활 균형 제도 이용에 있어 남성보다는 유자녀 기준여성들 중심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함. 이에 장기적으로 생애주기별 돌봄이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을 제안함
- '서울시 양육자 행복 프로젝트'에서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2023. 9. 1. 시행 예정). 이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의 목적뿐만 아니라 남성의 돌봄 참여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차지구별 지원 규모 및 예산 설계 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선정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 서울시 일-생활균형 3중 체제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바 휴가'로 명명할 것을 제안함

그림 17-1 남성 돌봄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남성돌봄 참여 활성화: 법령 및 조례 개정

- 또한 서울시 여성 휴가 규제를 추가로 지원하고, 출산 여성의 배우자 지위에 근거하여 설계된 제도를 '양육자' 지위에 근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조례 개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우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배우자출산 휴가'를 '여성 휴가'로 변경하고, 휴가 사유를 '배우자의 출산'이 아닌 '자녀의 출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표 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제193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생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193조의2(부성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출생 을 이유로 휴가(이하 "부성휴가"라 함)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함)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함)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③ 부성휴가 는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④ 부성휴가 는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는 부성휴가 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족 성평등 지표 제안

- 서울시 가족 성평등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할 여기에는 서울시민들의 가족 제도 변화 인지율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가족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가사노동과 돌봄 관련 실태, 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측정함으로써,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지속적으로 낮게 측정되는 가사노동, 돌봄, 가족관계 만족도 등과 관련된 영역의 개선이 모니터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가족 관련 성평등 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는 성인지동계 및 '서울가족 보고서'에서 매년 발표하여 정책 개선의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표 3 | 서울시 가족 성평등 지표(제안)

영역	지표	비고
성인지적인 가족문화	성평등 관련 평가	신규
	제도 인식률	신규 (통인신조사 데이터베이스 부위, 부위 공동연구, 교차분석 등)
가족 변화 인식	성평등인식조사	"성평등인식조사", 동일
	행동한 부부관계 제도	"성평등인식조사", 동일
	일여자의 변화 인식	신규
서울시 가족 성평등 수준 전후인식 평가	주관적 평가	신규
	시간, 만족도, 만족도	"성평등인식조사", "일·생활양성실태조사", "성평등인식조사", "일·생활양성실태조사"
돌봄	시간, 부담률, 만족도	일여자의 경우 일회성 COVID-19의 비교 추이 분석 가능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주관적 평가	돌봄으로 인한 중단 기록 후기 포함 신규

감사합니다



주최: 서울특별시
주최: 서울여성가족재단 (Seoul Women's Empowerment Foundation)
주최: 서울여성가족재단 (Seoul Women's Empowerment Foundation)
주최: 서울여성가족재단 (Seoul Women's Empowerment Foundation)
주최: 서울여성가족재단 (Seoul Women's Empowerment Foundation)
주최: 서울여성가족재단 (Seoul Women's Empowerment Foundation)

주제발표 3

서울형 다문화가족사업 연구

- 서울시 다문화가족 특성과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중심으로

고선강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3 공동 심포지움
가족과 동행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과 가족정책의 향후 과제

서울형 다문화가족사업 연구

-서울시 다문화가족 특성과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중심으로

고산강(성신여자대학교) 서지원(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1. 서울시 다문화가족 특성

- 1)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서울시 다문화 인구 현황
 - 다문화가구의 귀화자 및 결혼이민자를 의미하는 다문화 대상자
 - 2021년 대비 다문화 대상자의 증가율, 서울시는 2.3%의 증가율을 나타내서 전국의 증가율 3.7%보다 낮은 증가율
 - 2021년과 비교하여 2022년에 전체 다문화가구 중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이 2021년에 19.7%에서 2022년에 19.4%로 소폭 하락
- 2) 202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나타난 서울시 다문화가족 현황
 - 우리나라 전체 다문화가구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다문화가구의 규모는 346,017가구. 이 중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의 규모는 65,795가구 전체의 19.0%
 - 시·도 별 결혼이민자, 기타귀화자의 수를 추정 비교. 경기도와 비교, 5대 광역시와 비교하여 서울시 결혼이민자 비율 낮음

2

2.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개요

- 조사목적: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의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및 서비스 요구 파악
- 조사대상: 서울시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경험이 있으며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한국어 설문조사에 답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이 있는 결혼이민자 및 이주배경 여성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온라인 링크와 QR코드로 참여)
- 조사내용: 개인 특성, 가구 특성, 서비스 이용경험과 수요 등
- 조사기간: 2023년 6월 27일 ~ 7월 3일
- 최종 분석자료: 271부

2.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결과: 출생국가, 한국국적, 정착기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출생국가	중국	115	42.4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30	11.1
	한국계 중국	11	4.1		5~9년	73	26.9
	베트남	79	29.2		10~14년	93	34.3
	일본	21	7.7		15~19년	56	20.7
	몽골	11	4.1		20~24년	14	5.2
	대만	7	2.6		25년 이상	5	1.8
	필리핀	6	2.2		서울 거주기간	5년 미만	37
	태국	3	1.1	5~9년		75	27.7
	캄보디아	4	1.5	10~14년		98	36.2
	러시아	3	1.1	15~19년		42	15.5
	카자흐스탄	3	1.1	20~24년		16	5.9
	우즈베키스탄	3	1.1	25년 이상		3	1.1
	기타	5	1.8				
	한국국적	취득함	135	49.8			
취득하지 않음		136	50.2				

2.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빈도	백분율		변수	빈도	백분율
연령	20대	29	10.7	혼인상태	기혼	255	94.1
	30대	132	48.9		이혼	11	4.1
	40대	91	33.7		별거	1	0.4
	50대	18	6.7		사별	4	1.5
	계	270	100.0		계	271	100.0
학력	중졸 이하	23	8.5	취업상태	전일제 근로	41	15.1
	고졸	91	33.6		시간제 근로	70	25.8
	대졸 이상	157	57.9		자영업	15	5.5
	계	271	100.0		전업주부	118	43.5
한국어 능력에 따른 일상생활 수준	매우 불편하다	5	1.8		기타	27	10.0
	불편하다	43	15.9	계	271	100.0	
	불편하지 않다	149	55.0				
	전혀 불편하지 않다	74	27.3				
	계	271	100.0				

2.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결과: 가구 특성

	변수	빈도	백분율		변수	빈도	백분율	
가구형태	부부	10	3.7	자녀수	없음	9	3.3	
	부부 + 자녀	204	75.3		1명	101	37.3	
	부부 + 자녀 + 배우자부모	29	10.7		2명	119	43.9	
	부부 + 자녀 + 본인부모	11	4.1		3명	35	12.9	
	본인 + 자녀	15	5.5		4명 이상	7	2.6	
	1인 가구	1	0.4		학령기법 자녀 존재	미취학 자녀 있음	105	38.7
	기타	1	0.4			초등학생 자녀 있음	161	59.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0	11.1	중학생 자녀 있음		64	23.6	
	100만원 ~ 300만원 미만	101	37.3	고등학생 자녀 있음		31	11.4	
	300만원 ~ 500만원 미만	90	33.6					
	500만원 ~ 700만원 미만	38	14.0					
	700만원 이상	11	4.1					

2.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민자 등 개인 대상 서비스

여성 개인 서비스	이용 경험 있음			만족도 (3점 평정)			
	빈도	백분율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한국문화 교육	211	77.9	1	2.85	.368	2	
한국어 교육	가족센터	204	75.3	2	2.82	.423	6
	방문지도	162	59.8	4	2.84	.416	4
취업교육	기초훈련	158	58.3	5	2.76	.485	9
	전문자격	141	52.0	6	2.81	.430	7
통번역훈련	116	42.8	9	2.78	.434	8	
자조모임	181	66.8	3	2.86	.382	1	
다이움	126	46.5	7	2.85	.381	2	
통번역서비스	120	44.3	8	2.83	.436	5	

2.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민자 등 개인 대상 서비스

여성 개인 서비스	도움이 된 프로그램 (2가지 선택)			초기입국자에게 권하고 싶은 서비스 (2가지 선택)			가장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2가지 선택)			
	빈도	백분율	순위	빈도	백분율	순위	빈도	백분율	순위	
한국문화 교육	79	29.2	2	124	45.8	2	55	20.3	6	
한국어 교육	센터	108	39.9	1	162	59.8	1	68	25.1	3
	방문지도	56	20.7	5	67	40.2	3	32	11.8	8
취업 교육	기초 훈련	57	20.7	5	23	8.5	6	79	29.2	2
	전문 자격	71	26.2	4	23	8.5	6	125	46.1	1
통번역 훈련	34	12.5	8	19	7.0	8	64	23.6	4	
자조모임	72	26.6	3	54	19.9	5	58	21.4	5	
다이움	30	11.1	9	12	4.4	9	38	14.0	7	
통번역서비스	35	12.9	7	58	21.4	4	23	8.5	9	

2.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결과: 자녀 관련 서비스

자녀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있음			만족도(3점 평정)		
	빈도	백분율	순위	평균	표준편차	순위
자녀언어발달지원	146	53.9	3	2.78	.477	6
이중언어환경조성	166	61.3	1	2.79	.465	4
엄마나라언어 교육	149	55.0	2	2.73	.515	9
방문 부모교육	130	48.0	4	2.82	.440	2
아이돌보미(가정 파견)	79	29.2	11	2.70	.515	12
공동육아나눔터	110	40.6	6	2.85	.388	1
자녀돌봄 품앗이	95	35.1	8	2.81	.420	3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	120	44.3	5	2.78	.458	6
진로·직업체험·정서안정 지원	96	35.4	7	2.78	.463	6
자녀학교 가정통신문 번역	78	28.8	12	2.73	.501	9
시간제 아이돌보미(센터 이용시)	83	30.6	10	2.73	.496	9
초등생자녀 학습지도·학교교사 소통법	92	33.9	9	2.79	.458	4

2.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결과: 자녀 관련 서비스

자녀 관련 서비스	도움이 된 서비스 (2가지 선택)			초기입국자에게 권하고 싶은 서비스 (2가지 선택)		
	빈도	백분율	순위	빈도	백분율	순위
자녀언어발달지원	93	34.3	1	89	32.8	1
이중언어환경조성	83	30.6	3	79	29.2	3
엄마나라 언어 교육	86	31.7	2	59	21.8	4
방문 부모교육	45	16.6	5	80	29.5	2
아이돌보미(가정 파견)	22	8.1	9	34	12.5	7
공동육아나눔터	25	9.2	7	33	12.2	8
자녀돌봄 품앗이	25	9.2	7	25	9.2	10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	70	25.8	4	52	19.2	5
진로·직업체험·정서안정 지원	22	8.1	9	15	5.5	11
자녀학교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12	4.4	12	27	10.0	9
시간제 아이돌보미(센터 이용시)	16	5.9	11	14	5.2	12
초등생자녀 학습지도·학교교사 소통법	43	15.9	6			

2.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결과: 자녀 관련 서비스

자녀 관련 서비스	가장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2가지 선택)		
	빈도	백분율	순위
자녀언어발달지원	71	26.2	3
이중언어환경조성	65	24.0	4
엄마나라 언어 교육	78	28.8	1
방문 부모교육	40	14.8	7
아이돌보미(가정 파견)	36	13.3	9
공동육아나눔터	22	8.1	10
자녀돌봄 품앗이	40	14.8	7
진로·직업체험·정서안정 지원	76	28.0	2
자녀학교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48	17.7	6
시간제 아이돌보미(센터 이용시)	13	4.8	11
초등생자녀 학습지도·학교교사 소통법	53	19.6	5

11

2.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결과: 가족 단위 서비스

가족단위 서비스	이용경험 있음			만족도 (3점 평정)		
	빈도	백분율	순위	평균	표준편차	순위
취미·여가프로그램	190	70.1	1	2.89	.340	3
문화프로그램	181	66.8	2	2.90	.318	1
가족캠프	118	43.5	6	2.87	.404	4
대규모행사	175	64.6	3	2.87	.365	4
가족상담	121	44.6	5	2.81	.453	9
부부교육	104	38.4	8	2.77	.487	10
부모교육	153	56.5	4	2.84	.388	7
가족사랑의날	88	32.5	9	2.86	.377	6
가족봉사단	84	31.0	10	2.83	.434	8
다문화가족동아리	115	42.4	7	2.90	.360	1

12

2.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결과: 가족 단위 서비스

가족단위 서비스	도움이 된 서비스 (2가지 선택)			초기입국자에게 권하고 싶은 서비스 (2가지 선택)		
	빈도	백분율	순위	빈도	백분율	순위
취미·여가프로그램	153	56.5	1	115	42.4	1
문화프로그램	80	29.5	2	75	27.7	2
가족캠프	76	28.0	3	71	26.2	3
대규모행사	51	18.8	4	43	15.9	7
가족상담	39	14.4	7	53	19.6	5
부부교육	15	5.5	9	55	20.3	4
부모교육	49	18.1	5	31	11.4	8
가족사랑의날	21	7.7	8	24	8.9	9
가족봉사단	14	5.2	10	24	8.9	9
다문화가족동아리	44	16.2	6	51	18.8	6

2.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결과: 가족 단위 서비스

가족단위 서비스	가장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2가지 선택)		
	빈도	백분율	순위
취미·여가 프로그램	139	51.3	1
문화프로그램	56	20.7	3
가족캠프	125	46.1	2
대규모행사	45	16.6	4
가족상담	28	10.3	8
부부교육	16	5.9	10
부모교육	36	13.3	5
가족사랑의날	35	12.9	6
가족봉사단	27	10.0	9
다문화가족동아리	35	12.9	6

2.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결과: 운영방식에 대한 선호

변수		빈도	백분율
진행방식	대면	142	52.4
	비대면	36	13.3
	대면, 비대면 혼합	93	34.3
시간대	주중 낮 시간	134	49.4
	주중 저녁시간	36	13.3
	주말	101	37.3
방문교육의 필요성	필요하다	159	58.7
	필요하지 않다	70	25.8
	모르겠다	42	15.5
방문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모두 선택)	가정방문의 부담	43	61.4
	도움되지 않는 내용	8	11.4
	유사한 프로그램 참여	5	6.6
	신청 절차의 복잡성	10	13.2
	긴 대기기간	6	8.6
	기타	4	5.7

15

2.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결과: 연령집단에 따른 운영방식 선호 차이

		20대 (n=29)		30대 (n=132)		40대 (n=91)		50대 (n=18)		χ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진행 방식	대면	15	51.7	75	56.8	41	45.1	10	55.6	4.68
	비대면	5	17.2	13	9.8	16	17.6	2	11.1	
	혼합	6	31.0	44	33.3	34	37.4	6	33.3	
시간대	주중 낮	18	62.1	66	50.0	43	47.3	7	38.9	5.95
	주중 저녁	2	6.9	18	13.6	11	12.1	5	27.8	
	주말	9	31.0	48	36.4	37	40.7	6	33.3	
방문 교육	필요하지 않다	2	6.9	28	21.2	37	40.7	3	16.7	20.04 **
	필요하다	23	79.3	84	63.6	40	44.0	11	61.1	
	모르겠다	4	13.8	20	15.2	14	15.4	4	22.2	

16

2.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결과: **학력**에 따른 운영방식 선호 차이

		중졸 이하 (n=23)		고졸 (n=91)		대졸 이상 (n=157)		χ ²
		빈도	%	빈도	%	빈도	%	
진행 방식	대면	14	60.9	59	64.8	69	43.9	11.83 *
	비대면	3	13.0	11	12.1	22	14.0	
	혼합	6	26.1	21	23.1	66	42.0	
시간대	주중 낮	11	47.8	42	46.2	81	51.6	5.53
	주중 저녁	0	0.0	14	15.4	22	14.0	
	주말	12	52.2	35	38.5	54	34.4	
방문 교육	필요하지 않다	6	26.1	25	27.5	39	24.8	1.25
	필요하다	12	52.2	54	59.2	93	59.2	
	모르겠다	5	21.7	12	13.2	25	15.9	

2.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결과: **취업상태**에 따른 운영방식 선호 차이

		전일제 (n=41)		시간제 (n=70)		자영업 (n=15)		전업주부 (n=118)		기타 (n=27)		χ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진행 방식	대면	20	48.8	38	54.3	5	33.3	66	55.9	13	48.1	21.08**
	비대면	3	13.0	12	17.1	7	46.7	12	10.2	2	7.4	
	혼합	18	43.9	20	28.6	3	20.0	40	33.9	12	44.4	
시간대	주중 낮	10	24.4	28	40.0	6	40.0	77	65.3	13	48.1	29.99 ***
	주중 저녁	5	12.2	12	17.1	3	20.0	14	11.9	2	7.4	
	주말	26	63.4	30	42.9	6	40.0	27	22.9	12	44.4	
방문 교육	필요하지 않다	9	22.0	16	22.9	2	13.3	40	33.9	3	11.1	12.09
	필요하다	26	63.4	46	65.7	11	73.3	57	48.3	19	70.4	
	모르겠다	6	14.6	8	11.4	2	13.3	21	17.8	5	18.5	

2.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결과: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변수		빈도	백분율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있다	203	76.8
	없다	63	23.2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모두 선택)	필요성	16	7.9
	흥미롭지 않은 내용	11	5.4
	운영시간대 문제	141	69.5
	장소가 멀어서	37	18.2
	직장일	49	24.1
	자녀 돌봄	39	19.2
	알지 못해서	39	19.2
	이미 마감되어서	7	3.4
	기타	4	2.0

2.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결과: 가족센터 서비스 인지경로 → 홍보방안

변수		빈도	백분율	순위
가족센터 서비스 인지 경로 (모두 선택)	거리현수막	16	5.9	7
	문자메시지	157	57.9	1
	SNS	82	30.2	3
	구청 홍보지	17	6.3	6
	지인 소개	126	46.5	2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마이서울앱	32	11.8	5
	구청, 시청 홈페이지	15	5.5	8
	인터넷 검색	44	16.2	4
	기타	5	0.2	9

2.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결과: 유관기관 이용경험 → 협력기관

유관기관 이용경험 (모두 선택)	변수	빈도	백분율	순위
		사회복지관	85	31.4
	도서관	127	46.9	1
	다문화가족취업중정기관	67	24.7	6
	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88	32.5	4
	구민회관	24	8.9	9
	문화센터	91	33.6	3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119	43.9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	8.1	10
	지역아동센터	41	15.1	7
	우리동네키움센터	18	6.6	11
	이용하지 않았음	26	9.6	8

2.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가족센터 이용자 초점집단면접 (3인)

■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 이용자 초점집단면접 결과 도출된 주제

대주제	소주제
가족센터 이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의 시작은 한국어수업으로 ▪ 한국어 교육, 집합교육과 방문교육 각각의 장점 ▪ 한국어를 잘해도 여전히 어려운 한국 생활문화, 한국인 멘토의 역할 ▪ 자녀 학습 지원 등 만족스러운 자녀 지원 프로그램 ▪ 배우자, 부부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결혼이민자에게 집중된 프로그램, 중장기 결혼이민자는 이용할 프로그램이 없다. ▪ 자녀 지원 서비스는 아동에 더 전문적인 선생님이 ▪ 남편의 프로그램 참여 어려움, 그러나 최근 변화한 젊은 세대의 남편들 ▪ 엄마가 자녀의 이중언어 코치? 글썄. ▪ 다문화가족의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과거의 틀에 갇힌 프로그램

2.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가족센터 이용자 초점집단면접(3인)

-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 이용자 초점집단면접 결과 도출된 주제-계속

대주제	소주제
장기 정착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원-한국인 학부모 멘토링 프로그램 ▪ 장기 정착 결혼이민자의 높은 취업 욕구, 센터 프로그램과 한국의 취업 시장의 한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 장기적 전문적 취업프로그램 ▪ 통합프로그램- 한국생활을 깊이 이해하는 기회, 진정한 인식개선의 기회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대상에 대한 제안; 가족의 범위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반에 문화다양성 이해와 확대 노력

3.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가족서비스 요구: 향후 과제

1)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변화

- 서울시 국제결혼 건수 감소, 전체 다문화가족에서 초기 다문화가족 비율 감소
- MZ세대 이주 배경 여성의 특징- 고학력, 높은 한국어 구사 능력, 미디어와 SNS를 통한 한국문화 경험, 다양한 출신국가
- 신규 다문화가족의 특성 변화-다양한 결혼 과정, 무자녀 가족, 길어진 무자녀 기간
- 다문화가족 안에서 가족구조 다양화- 한부모가족, 중도입국 자녀(입양가족), 재혼가족, 1인가구, 친정부모 초청 3세대 가족 등
-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양극화
- 서울시 자치구, 권역 별 다문화가족의 특성 차이-이주 배경, 출신국가, 경제적 취약성 등

3.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가족서비스 요구: 향후 과제

2) 서울시의 자치구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의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요구

- 중장기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자녀 양육에 대한 적극적 관심 : '한국의 교육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다.'
- 다문화가족에서 아버지의 역할 요구- 자녀 양육자 역할에서 배제→ 아버지, 남편 역할에 적극적인 아버지들의 등장
- 변화하는 이주여성,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요구
-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증가, 진정한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욕구
- 체계적, 장기적, 전문적 취업프로그램 요구
- 다문화가족인식 개선을 넘어서 문화다양성 이해와 확대

3.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가족서비스 요구: 향후 과제

3) 저출생 대응과 서울형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향후 과제

(1) 보편적 가족서비스의 다문화가족 배리어 프리 가족정책

- 가족다양성, 사회통합, 보편적 서비스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배리어 프리 가족정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
- 배리어 프리 정책의 첫 단계로 언어 장벽 제거, 가족센터 사업부터 적용
- 가족센터 프로그램에 다국어 통역 체계 구축
- 서울가족학교 커리큘럼에 각 문화 별 특성 내용 추가한 교육자료. 여러 언어로 자료 구축
- 가족 교육 수업자료 번역 제공
- 배리어 프리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단기는 언어 장벽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 필요

4.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가족서비스 요구: 향후 과제

3) 저출생 대응과 서울형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향후 과제

(2) 중장기 거주 가족의 '자녀 양육과 교육' 요구를 반영한 정책

- 서울시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별로 점검하고, 시기 별로 다문화가족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구조화 및 계발
- 특히 결혼이민자 지원, 자녀 지원 등 개인 중심의 지원은 지양하고, 중장기 거주 가족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가족서비스 욕구를 반영하여 자녀 양육과 교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가족의 역량 강화, 가정환경 조성 등의 정책 방향 제안→ 예) 다문화가족을 고려한 서울시의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3.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가족서비스 요구: 향후 과제

3) 저출생 대응과 서울형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향후 과제

(3) 다문화가족 대상 정책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 반영 강화

- 다문화가족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대상 정책에서 문화적 민감성 반영 방안
- 기존 다문화가족 대상 사업과 프로그램의 문화적 민감성 검토 및 개선

(4) 외국인노동자가족, 유학생 가족 등 새로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논의

- 새로운 유형의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 사회의 누구로 받아들일 것인가?
- 기존의 가족정책의 체계 안에서 지원할 것인가?

(5) 서울시의 다문화가족, 외국인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과 연계 체계 마련

- 다문화가족의 다양성→ 다양한 부처에서 다문화가족지원하는 정책과 사업 진행→ 네트워크를 통한 역할 분담 필요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4

가족정책 수요 및 만족도 조사

- 가족센터 종사자 관점에서 보는 가족사업 수요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가족정책 수요 및 만족도 조사]

가족센터 종사자 관점에서 보는 가족사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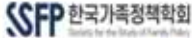
2023. 10. 13

연구책임자: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보조연구원: 노신애, 조현지(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정책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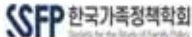


서울시 정책환경 변화 [동행 + 도시경쟁력]

최근 서울시 프로젝트

-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
- 안심소득 실험
- 서울시 대개조 프로젝트
- 서울 관광 미래비전(3·3·7·7)





가족센터

- 2005년부터 약 20년 동안 가족 사업 실행
 - 서울시 가족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여성가족부, 서울시가족센터 사업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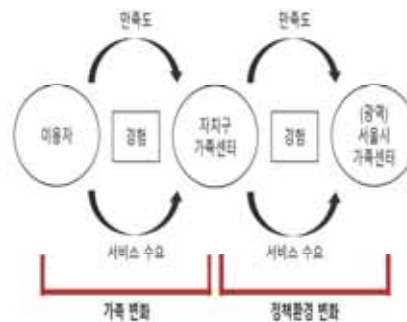
- 대상 확대

미성년자녀 양육 가족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1인가구

-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기관 위상
 - 가족 대상 사업기관으로 자리매김
 - 생활SOC복합화 일환으로 센터의 물리적 환경 개선

연구 개요

- 2023 가족정책 수요 및 만족도 조사(2023. 4 ~ 1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1) 2008, 2018, 2022년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구조 변동 파악
 - 2) 서울시가족센터 사업 현황 분석
 - 3)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대상 사업 수요 및 만족도 조사(2023. 7.6. ~13.)
 - 센터 당 이용자 20명 할당(총 528명 응답)
 - 센터 당 종사자 8명 할당(총 220명 응답)
 - 센터장 FGI, 실무자 FGI



발표 내용

-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를 조사
 - 1) 기존 사업 - 현재 가족센터의 사업 확대 필요성 질문
 - 2) 새로운 사업 - 새로운 사업 예시를 제시하고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질문

※ 5점 척도에서 4점(필요하다), 5점(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 제시
- 종사자와 이용자 응답 비율이 통계적으로 차이나는 내용 중심으로 제시

서울시 0~6세 인구 변화: 2만 명 이상



2008년_19개구



2018년_10개구



2022년_3개구

서울시 65~74세 인구 변화: 4만명 이상



2008년_0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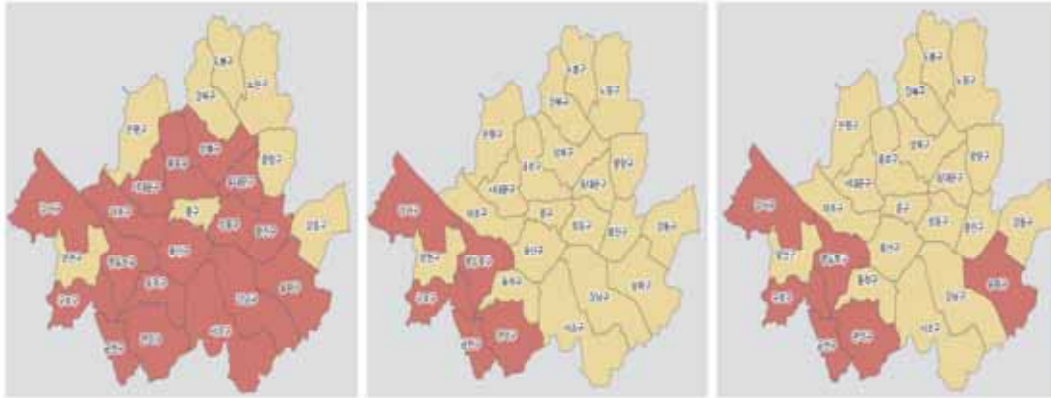


2018년_6개구



2022년_11개구

서울시 다문화 가구 변화: 3천 가구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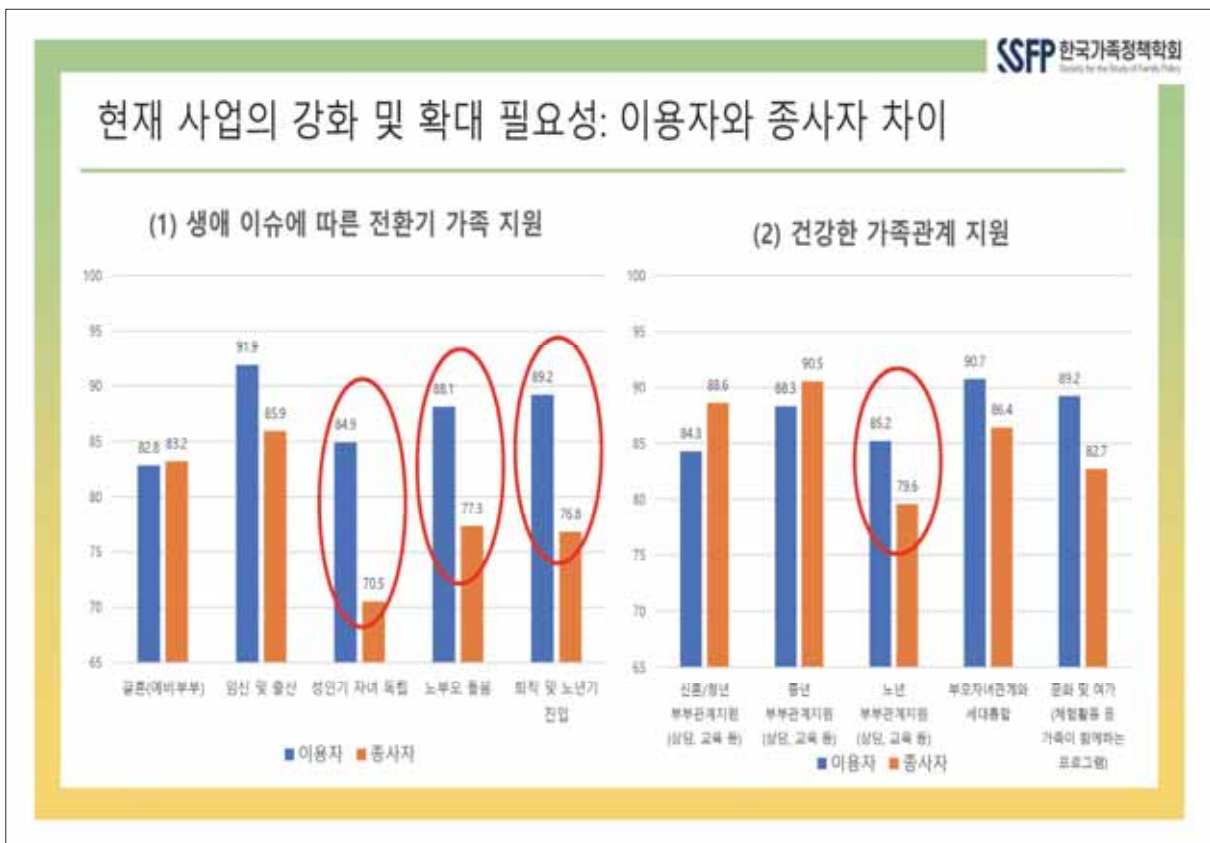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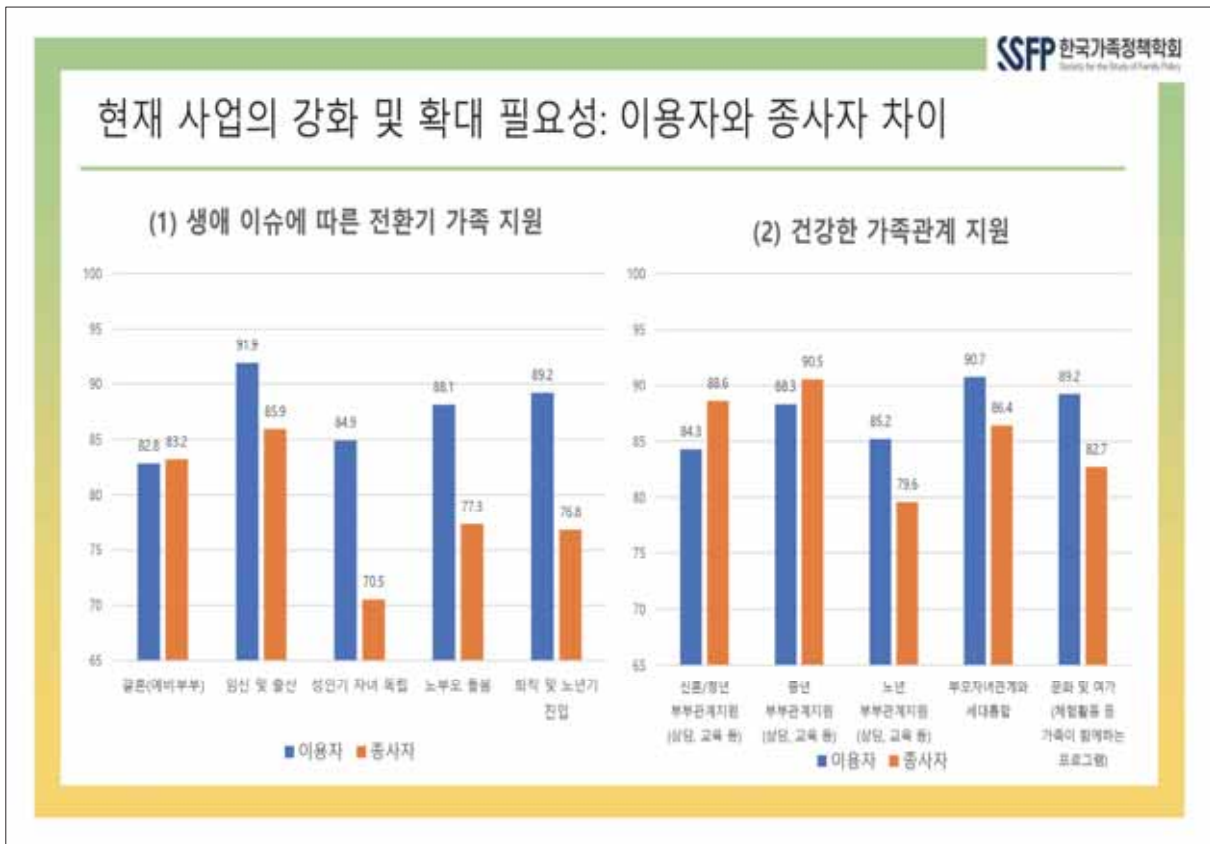
2010년_17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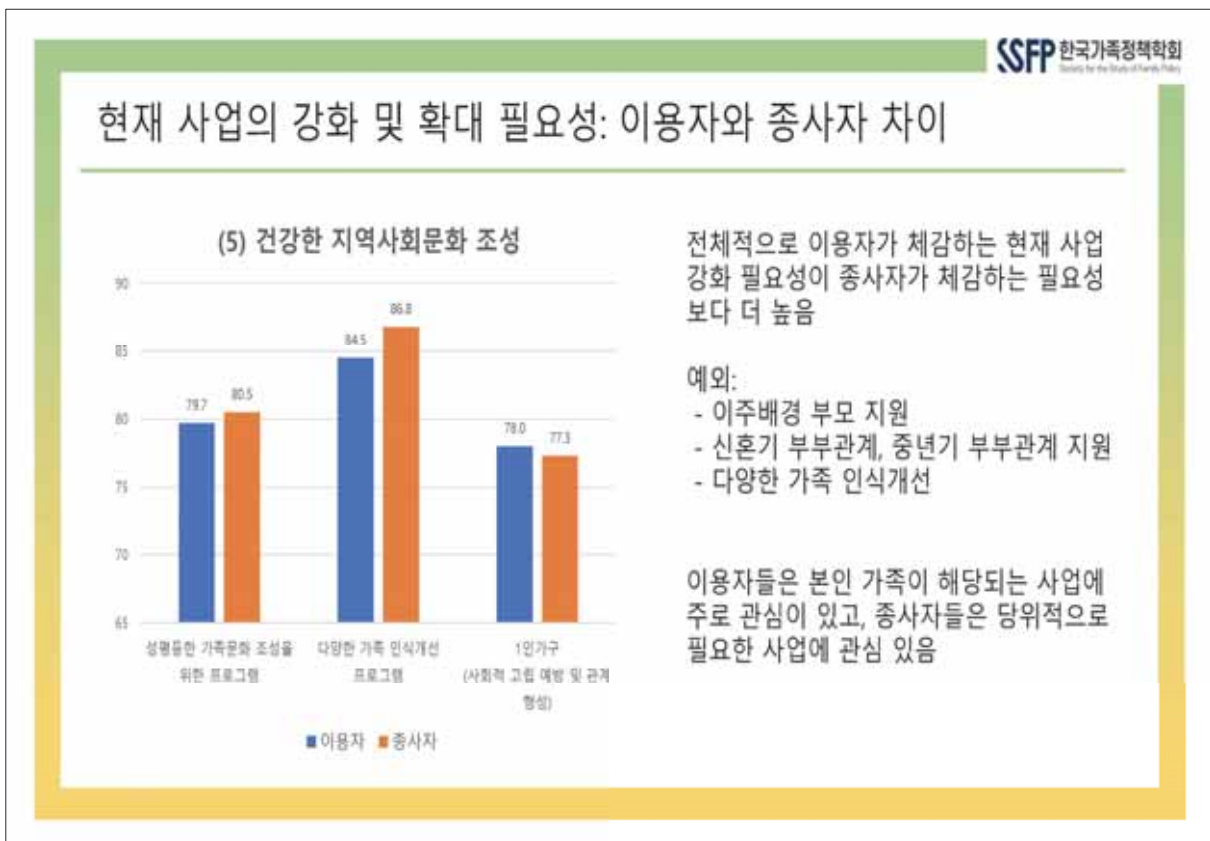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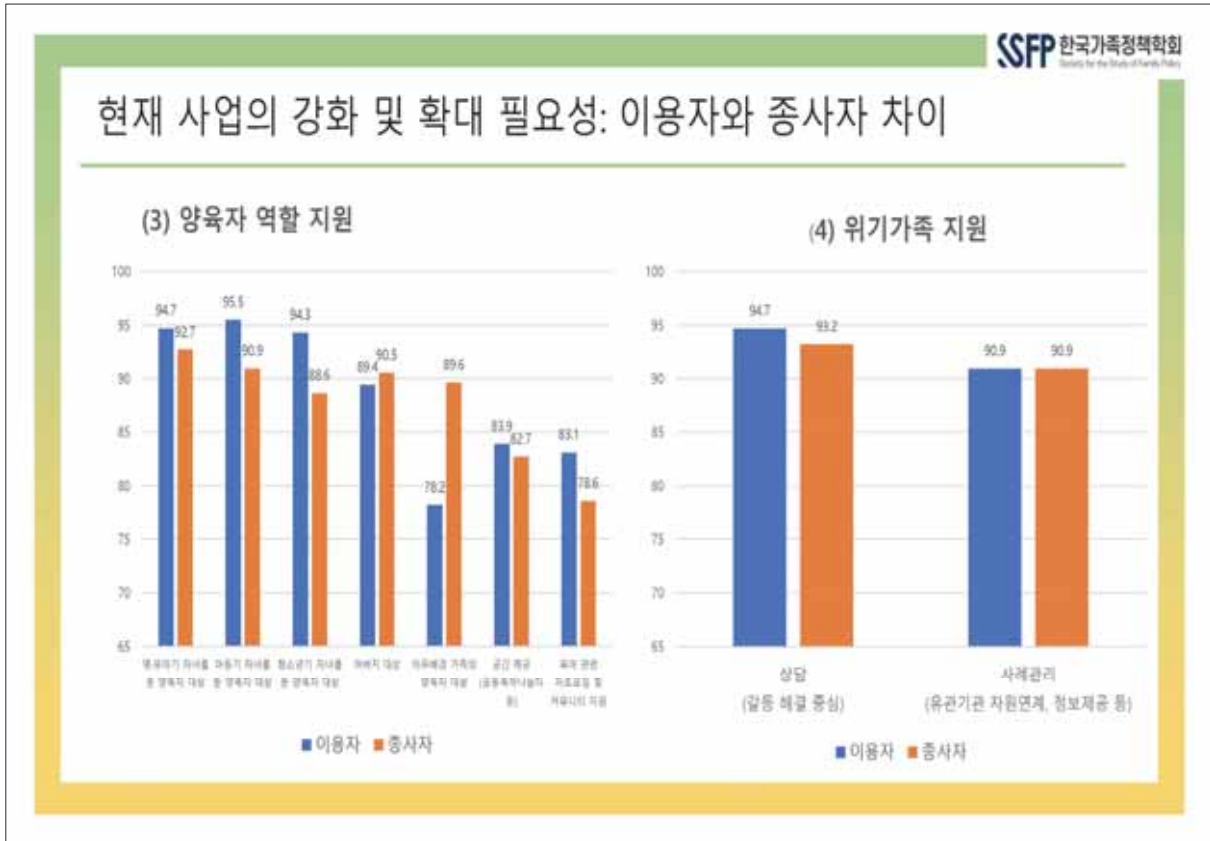
2018년_5개구

2022년_6개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강화 및 확대 필요성: 종사자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순위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순위
1. 생애 이슈에 따른 전환기 가족 지원	결혼(예비부부)	83.2	13	3. 양육자 역할 지원(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92.7	2
	임신 및 출산	85.9	12		아동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90.9	3(공동)
	성인기 자녀 독립	70.5	22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88.6	8(공동)
	노부모 돌봄	77.3	19(공동)		어버지 대상	90.5	5(공동)
	회적 및 노년기 진입	76.8	21		이주배경 가족의 양육자 대상	89.6	7
2. 건강한 가족 관계 지원	신혼/영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	88.6	8(공동)		공간 제공(공동육아나눔터 등)	82.7	14
	중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	90.5	5(공동)		육아 관련 자조모임 및 커뮤니티 지원	78.6	18
	노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	79.6	17	4. 위기가족 지원	상담(갈등 해결 중심)	93.2	1
	부모자녀관계와 세대통합	86.4	11		사례관리(유관기관 자립연계, 정보제공 등)	90.9	3(공동)
	문화 및 여가(체험활동 등)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82.7	14	5.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 조성	성경동행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80.5	16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		86.8	10	
				1인가구(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계 형성)	77.3	19(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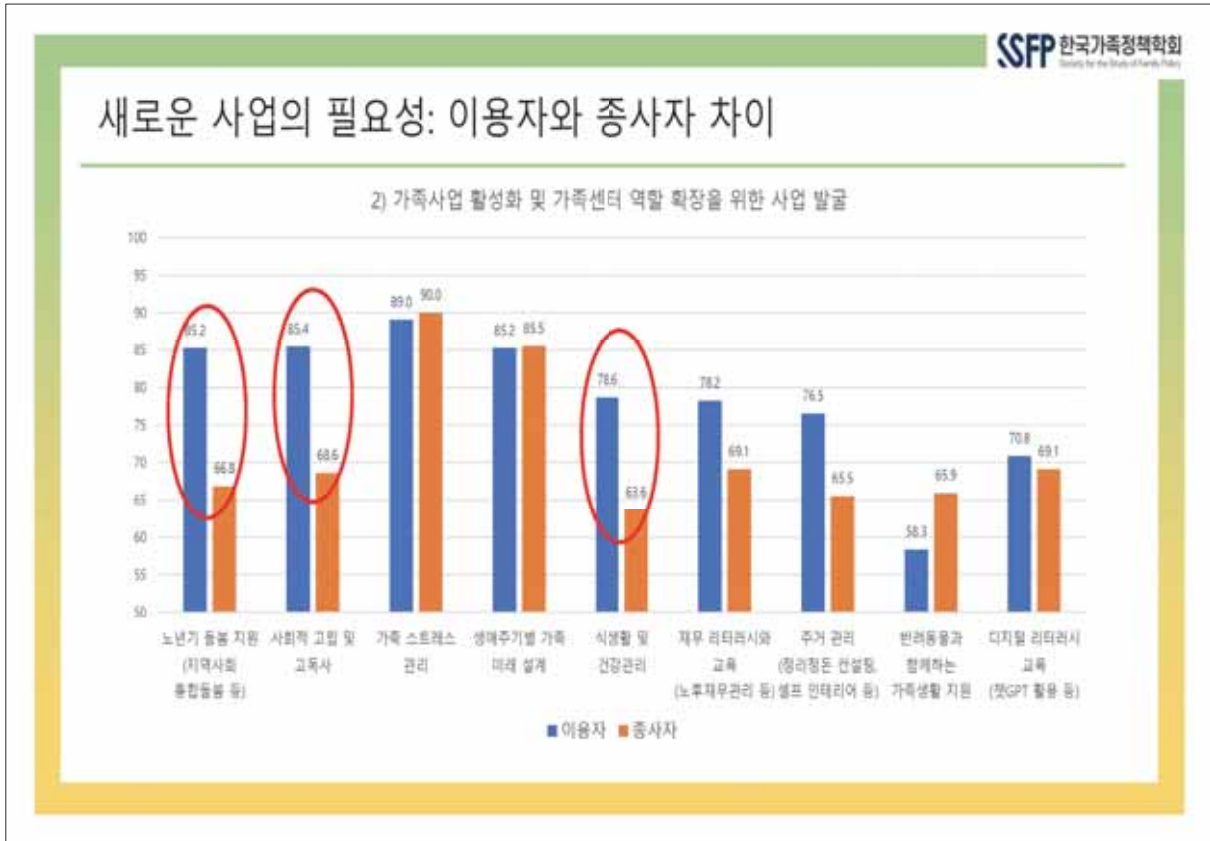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 종사자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순위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순위
1. 저출생·고령화와 관련하여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와 필요성	아버지 육아휴직 건설형	79.1	6	2. 가족사업 활성화 및 가족센터 역할 확장을 위한 사업 발굴	노년기 돌봄 지원(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66.8	13(공동)
	MZ세대 부모를 위한 양육 건설형	79.6	5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68.6	11
	다문화가족 부모학교	80.0	4		가족 스트레스 관리	90.0	1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활동 지원	67.3	12		생애주기별 가족 미래 설계	85.5	2
	공동육아나눔터 대관 등 공간 활용	78.2	7		식생활 및 건강관리	63.6	17
	새로운 양육문화 조성 캠페인	75.0	8		재무 리터러시와 교육(노후재무관리 등)	69.1	9(공동)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	80.5	3		주거 관리(영리정돈 건설형, 생프 인테리어 등)	65.5	16
	가족봉사단 등 이웃과의 교류 지원	66.8	13(공동)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생활 지원	65.9	15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갯GPT 활용 등)	69.1	9(공동)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 이용자와 종사자 차이

(1) 저출생·고령화와 관련하여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성





- SSFP 한국가족정책학회
Society for the Study of Family Policy
- ## 가족사업 요구
- 공통점: 가족스트레스 관리, 생애주기별 가족 미래 생애설계는 이용자, 종사자 모두 필요성을 높게 인식
 - 차이점
 - 이용자는 가족생애주기 전반 및 생활 전반에서 수요 표현
 -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노년기 돌봄, 사회적 고립, 식생활과 건강관리 등
 - 종사자는 현재 센터의 인적 자원, 예산, 공간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사업 보다 현재 사업을 내실화하는데 주력
 -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필요성 동의

가족사업 운영: 자치구 센터

-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제한된 예산, 인력 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1) 개별 센터의 자율성을 높여서 주력 대상을 특정
 - 2) 가족생활 전반에 걸친 수요가 있다는 점을 수용
 - 3) 현재 이용층이 센터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장기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유지
 - 4) 서울시 정책의 전반적 기조와 방향 맞추기

가족사업 운영: 서울시 및 서울시가족센터

- 서울시의 전반적 정책 기조와 방향성 공유
 - 서울시 정책 정보를 시의성 있게 공유
 - 가족센터의 정체성과 변화를 반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논의 장 마련
- 조사 연구를 통해 가족 변화를 예측하고, 수요 전망
 - 서울가족보고서 조사 규모를 확대하여 구별 분석 결과 제공
- 특화 사업 운영의 유연성 확대
 - 지역센터의 자율성 보장
 - 거주지역 제한하는 서비스 이용/참여 규정 완화

종합토론

안현미 (돌봄정책&젠더연구 소장)

이나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성희 (여주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한은주 (강북구가족센터장)

토론문 1

아동 행복이 양육자(엄빠) 행복인가? 양육자 행복이 아동행복인가?

안현미 (돌봄정책&젠더연구 소장)

- 서울가족서베이의 비양육자(1,468명)와 서울가족서베이의 양육자·양육자서베이(923명)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교분석한 것은 흥미로웠음
- 서울시 4대 분야 추진사업, 즉 안심돌봄, 일생활균형, 편한외출, 건강힐링 순의 정책적 우선순위 조사 결과는 예측된 결과이고 모두 양육을 위해서는 필수요소임
 - 하지만, 양육자(부모 등)의 욕구조사결과와 정책적 플랜에 있어서는 갭이 존재함. 추가수요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지원이 1순위임
 - 추후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정책적 효과(긴급성, 보편성, 선별성 vs 단기적, 장기적 등)와 재원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조사가 필요함. 즉, 현금지원방식과 현물지원방식 그리고 기타(바우처 등) 등의 방식에 따라 정책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양육자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함. 현금지원방식은 직접적이고 단기적 효과성이 높지만 장기적 효과와 재정효율성 차원에서 낮음. 인프라 확충 및 환경개선 전략은 장기적 효과성이 높고, 대상자 파급효과가 커 재정효율성 측면에서도 높음(소요예산과 수요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그렇다면, 서울시 정책적 전략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 것인가?
 - 현재 영영아 및 영아중심의 집중 전략에서 돌봄을 필요로하는 초등학생까지 확대는 필요함. 서비스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가가 중요함(앞에 설명)
 - 예를 들면, 아동의 놀이권보장 및 발달지원을 위해서는 서울형키즈카페-서울형아이돌봄비 지원-(아이돌봄지원사업)-공보육시설 확충-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등이 연결되어 있음. 그렇지만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확대에도 아이돌보미 고용안정을 위한 장기적 플랜은 부재(수를 늘리자는 의미는 아님)하고, 서울아이발달지원에 있어서 키즈카페사업과의 연계 전략 등은 미흡함(아래 박스 참조). 특히 아이돌봄서비스는 유보통합으로 이어질 경우, 가정내 돌봄수요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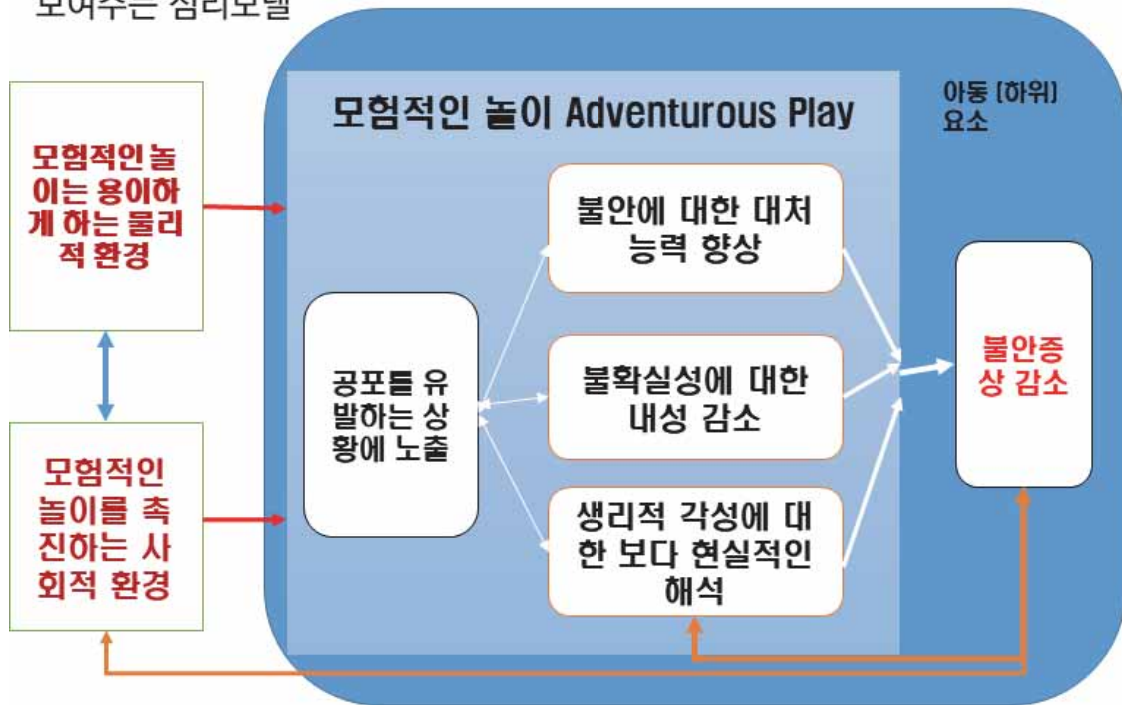
- 소득기준은 한계가 있음. 부모를 기준으로 하면, 필요하지만, 아동을 기준으로 돌봄권(부모와의 애착 포함), 놀이권, 건강, 안전환경(이동권 포함) 등은 모든 아동에게 필요함. 재정적 효율성 측면에서 소득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제한을 두게 되는데 인프라를 통한 확충은 이용료가 있는 경우 차등적용을 통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욕구가 있는 아동은 누구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함(아동 수 vs 가구 경제활동)

참고: Play England information sheet 2: Mental Health and Play(Feb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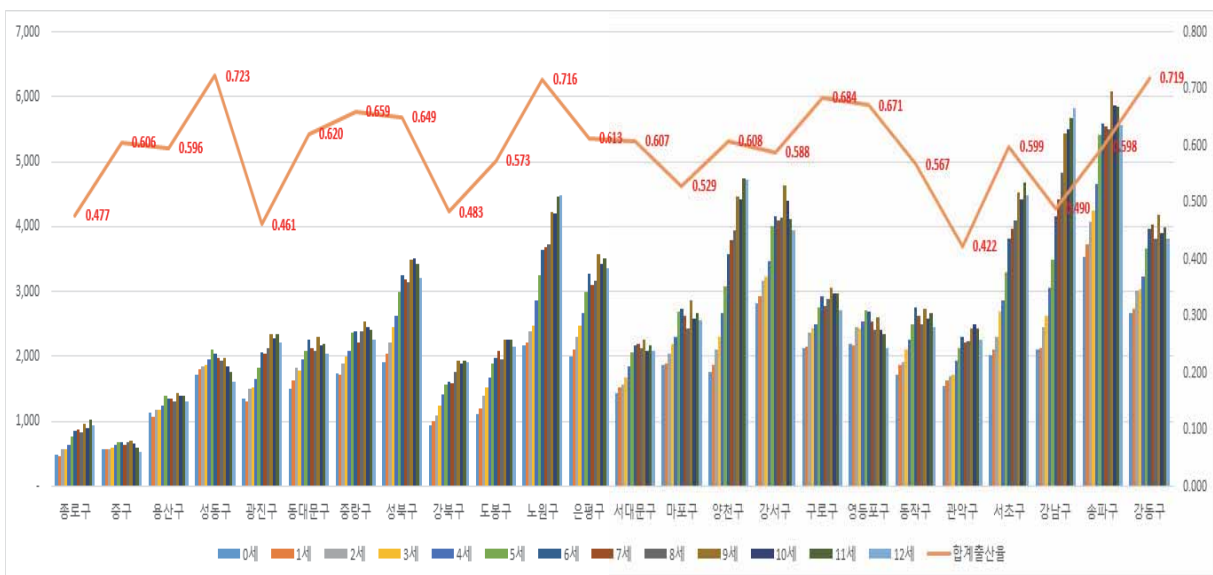
- 1999~2017년 5~15세 전체 정신건강문제 11.8% → 13.1%(2022년 7~16세 조사에서 18%가 정신건강문제). 가장 큰 문제는 정서적 문제 2004~2017년 사이 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 수가 49% 증가.
- 정신건강 통계와 놀이 관련성은 ① 5명중 1명은 정신건강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아동임. ②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임
- 놀이가 어떻게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 지원하는가?: 놀이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감점의 방출과 표현을 제공할 수 있는데 감정표현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특히 중요함. / 모험적으로 노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 정서적 문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Dodd & Lester (2021:165)

모험적 놀이가 인지행동요인을 통해 불안위험과 불안증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보여주는 심리모델



- 발제자(안현찬 박사)가 주장한 신규정책개발 영역 확대 등에 있어서 동의함. 특히, 영유아 돌봄을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돌봄공백율이 높고, 지역적 편차도 큼
- 추가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인가?에 대한 질문과 서울시 자치구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전략에 고민이 필요함
 - 0~12세 아동 수&합계출산율을 보면, 송파구(0~12세 아동 수 1위/TFR 14위), 강남구(2위/20위), 서초구(5위/13위), 양천구(7위/10위) 등은 급감하는 현상을 보임(서울시 전체적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출생아수 급감). 반면, 상대적으로 아동 수가 많았던 강서구(3위/16위), 강동구(4위/2위), 노원구(6위/3위)는 완만한 하락추세를 보임.



[그림 1] 서울시 자치구별 아동 수(1세별)와 합계출산율

- 모의 연령별 출산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가장 높은 연령대(서울시 평균 53.5명)인 30~34세의 경우, 노원구, 강동구, 구로구, 성동구, 성북구 순이고, 두 번째로 높은 연령대(서울시 평균 43.4명)인 35~39세의 경우, 성동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동구 순으로 출생율이 높음



[그림 2] 모의 연령별 출생율(연령별 여성 천명 당 출생아 수)

- 다만, 정책적으로 아동 수가 많은 지역은 현금지원방식의 재정적 부담이 클 것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인프라 확충 등의 부담이 클 것임. 또한 자치구 내에서도 출생아 수가 급증하는 곳과 급감하는 곳의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임
- 자치구와 협업을 통한 면밀한 지방자치가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토론문 2

서울시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문

이나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서울시 가족성평등 실태조사’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성평등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금까지 주요 관심 주제로 두드러지지 않았던 가족 성평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정책 방안 제시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서울시 가족성평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가족과 함께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과 가족정책의 향후 과제’ 심포지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1995년 UN 북경 세계 여성대회이후 ‘성주류화’는 성평등정책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세계적으로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 사회 역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성주류화 정책 추진으로 모든 정책의 집행과정에 있어 성평등 관점을 고려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을 비롯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 제정으로 성평등 확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왔다.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의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평등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성평등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에서의 성평등 이슈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지 않은 경향이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인식에 있어 평등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반해, 여전히 돌봄 책임 분담과 같은 가족 관련 역할 수행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성평등지수에 있어서 서울시의 가족영역 성평등 수준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가족성평등 실태조사는 사회조사, 가족실태조사 등에서 다루었던 가족관련 조사 내용에서 확장되어 구체적인 성차별적 가족문화 실태, 가족관계에서의 성평등 평가 등의 가족성평등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기존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 성평등 조사에서 확장하여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성평등 실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포괄하여 한국사회의 가족 변화와 가족관계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은 자신들의 가족은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서는 낮게 인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족문화나 성장과정에서

성차별 경험 비율이 낮지 않으며, 돌봄 등의 역할 수행에 있어 젠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성평등 수준은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에서의 불평등은 민감하게 인식하면서 가족에서의 성평등 문제는 불평등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 역할 수행의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 관념이 이러한 인식의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형적인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생계부양자와 돌봄자 역할에 대한 성별 분업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가사나 가족 돌봄은 여성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실태조사 결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 고용 등에 있어 법적으로 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의식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족역할 수행에 있어서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가족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나 실제 수행은 여전히 평등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가족 성평등 정책을 위해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가사·육아·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과 가사·육아·돌봄의 여성 집중, 가사·육아·돌봄에서의 낮은 남성 참여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 역할 수행에 있어 불평등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서울시민의 인식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족 성평등과 관련하여 추진된 주요한 정책으로는 남성의 가족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을 꼽을 수 있다. 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정책인 육아휴직의 경우, 여전히 남성보다는 여성 이용자가 더 많으며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걸림돌 중 하나는 현실적이지 않은 소득 대체율일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남성 돌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필요 정책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의무화와 급여 인상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 남성 돌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 부성휴가 급여 추가를 비롯한 남성의 부성휴가 사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남성 참여 확대를 위한 제언이다.

또한,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돌봄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역시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가족 역할 수행 인식의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가족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나 실태조사에서도 경제적 부양 부담은 남성이, 돌봄 부담은 여성이 크다는 결과는 여전히 성별 분업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함께 돌봄을 위해서는 남성의 돌봄 참여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인 생계부양자, 이인 돌봄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의 생계 부양을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다른 성평등 인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남성에게 돌봄 역할에 대한 요구뿐 아니라 여성이 생계부양자로서 가족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결혼이나 자녀 출산 의향에 있어서 생계 부양이나 돌봄 부담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이인 생계부양자, 이인 돌봄자 모델'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서울시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경력 유지를 위한 지원과 돌봄 정책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인 생계부양자를 위해 여성의 경력 유지가 중요한 부분이라면, 이인돌봄자를 위해 중요한 것은 남성의 돌봄자 역할 인식일 것이다.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남성 양육 참여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남성의 양육 참여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보조적이라는 부분이 남아있다. 이인 돌봄자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여성의 돌봄 역할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양육자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육아휴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뿐 아니라 실질적인 돌봄 활동을 위한 지원에 있어 남성의 인지도 및 접근성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가족 사업 및 저출생 대응 사업으로 추진되는 실질적인 남성 돌봄 활동을 위한 지원은 남성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남성의 적극적인 정책 이용과 돌봄 활동 지원 참여를 위해서는 남성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이 서울시가 가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종합적 계획의 방향성을 가지고 남성 돌봄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토론문 3

“서울형 다문화가족사업 연구-서울시다문화가족 특성과 가족센터 이용자 요구 중심으로” 토론

김성희 (여주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1.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특성, 교육수준이 높은 30, 40대 부모-자녀 세대

○ 본 연구 결과를 ‘2021 전국 다문화가족실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연령은 30대(48.9% 대 36.4%)와 40대(33.7% 대 24.0%) 비중이 높고, 학력수준이 대졸이상(57.9% 대 17.5%)인 경우가 과반수이상임.
- 취업(46.5% 대 60.8%) 비율은 낮으며,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음.
- 100만원 미만과 500만 원 이상의 소득수준(11.1% 대 10.2%, 18.1% 대 12.8%)의 비중이 높은 반면 100~500만원 미만(70.9% 대 77.1%)은 낮은 비율을 보여 소득의 격차가 큼
- 거주기간은 15년 이상 거주자보다는 5년~14년의 거주자 비율(63.9%로 대 48.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특성이므로 서울형 다문화가족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됨. 그러나 연구자가 언급하였듯이 다문화가족의 이주 배경, 출신 국가, 경제적 수준, 학력 등은 초기에 비해 그 격차가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서울형 다문화가족사업을 기획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 서울형 다문화가족사업 개발 시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서울형 다문화가족사업에 포함시킬지의 여부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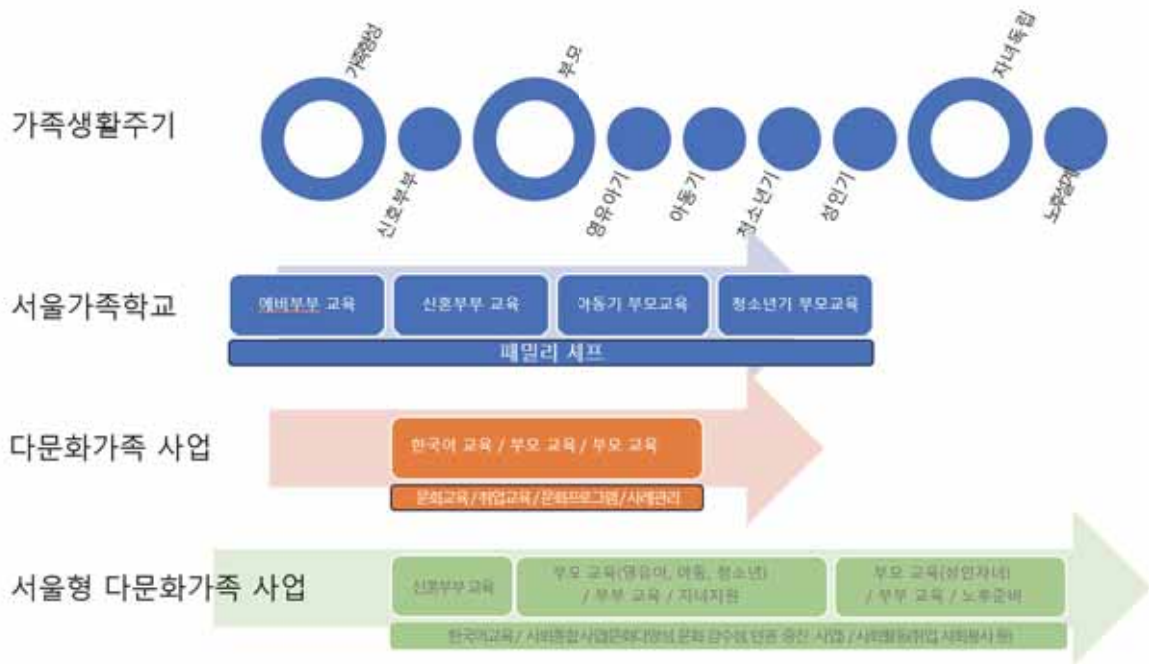
○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을 토대로 기존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 조사 결과가 제시되었으나 세부 사업별 분석 결과까지 반영하여 서울형 다문화가족사업이 제시될 필요 있음.

- 방문교육사업의 경우 초기입국자에게 권하고 싶은 서비스이나 방문 부모교육 도움 정도는 중간,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로는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음.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방문교육은 필요 없다는 의견이 20대와 30대에 높은 비율을 보이므로 혼합형태의 교육으로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함.

- 자녀돌봄서비스로 중 엄마나라언어 교육은 이용 경험 2순위, 도움정도 2순위, 만족도는 9순위, 초기입국자에게 권하고 싶은 서비스 4순위, 가장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1순위로 나와 만족도가 낮은 이유에 대한 분석과 운영방안 개선이 모색될 필요 있음.
- 자녀언어발달지원은 도움 된 서비스와 초기입국자에게 권하고 싶은 1순위였으므로 서비스로 조기개입의 필요성 확인, 그러나 만족도는 6순위 어린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실시되어야 하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로 생각됨.

3. 서울형 다문화가족사업 개발 시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사업을 고려하되, 비다문화가족 사업과의 ‘따로 또 같이’ 사업 구상 필요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한국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비다문화가족과의 통합 프로그램이 필요. 서울시가족센터의 경우 서울가족학교 사업이 훌륭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필요에 따라 별도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될 필요 있음.
- 자녀돌봄 품앗이의, 초등자녀 학습지도학교교사 소통법은 비다문화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서비스로 나타났으므로 자녀양육과 교육 등은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공동 프로그램으로 기획할 필요 있음.
- 취미여가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등은 이용경험, 도움정도, 만족도, 초기입국자에게 권하고 싶은 프로그램, 비다문화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서비스로 상위순위를 차지하므로 기존의 운영방식을 유지, 발전시켜나갈 필요 있음.
- 가족생활주기별 서울가족학교 사업과 다문화가족사업을 통합하여 서울형 다문화가족사업을 제안한다면 아래의 그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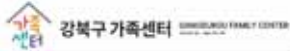
[그림 1] 서울형 다문화가족사업


4. 지역 간 편차, 다문화가족 간 차이, 다문화가족 유형의 다양화 등으로 인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서울형 다문화가족사업을 기획,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센터 방문 시 초기면담을 실시. 면담 자료를 활용한 사업기획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AI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이므로 초기면담 자료를 토대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등이 진행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간(예산과 담당 업무 포함) 경계가 사라져야 하며,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 조정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 담당자가 요구됨.

토론문 4

가족센터 종사자 관점에서 보는 가족사업 수요에 관한 논의

한은주 (강북구가족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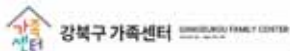
2023 공동 심포지엄 가족과 함께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과 가족정책의 향후 과제


<종합토론>

가족센터 종사자 관점에서 보는 가족사업 수요에 관한 논의

한은주 (강북구가족센터/한국가족정책학회)








(가족센터 종사자 관점에서) 발표자료 중 눈에 띄는 결과

1. 2023 서울가족의 탄생 및 양육
 - '혈연관계'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심리적 유대'의 중요성은 증가
 -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가 될 의향이 더 있으며, 남성(아빠)가 여성(엄마)보다 부모로서 더 행복하다고 응답함.
 - 만 0-9세 자녀를 둔 서울시민 중 가사 등 집안일 그리고 자녀양육 및 교육을 '주로' 또는 '대체로' 엄마가 하는 비율이 아빠가 하는 비율보다 높으며, 여성(엄마)이 남성(아빠)보다 부모가 될 것을 후회한다고 응답함.
2. 서울시 가족 성평등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 성별분업에 동의하지는 않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남성은 경제적 부양부담, 여성은 돌봄 부담을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센터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들은 무엇이고, 향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족센터 종사자 관점에서) 발표자료 중 눈에 띄는 결과

3. 서울시민의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인식과 수요

- 0-2세 양육자는 출산맘 지원, 맞춤형 양육코칭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초등 저학년 양육자의 경우 경제적 지원 강화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가족센터 종사자 관점에서 보는 가족사업 수요

- 이용자 and 종사자가 말하는 현재 사업의 강화 및 확대 필요성
 - ☞ 이용자: 생애 이슈에 있어 '임신 및 출산' 시기를 중요시 여겼으며, 이와 더불어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역할 지원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와 세대통합에 대한 요구가 종사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종사자: 중년 부부관계 지원(상담/교육 등), 이주배경 가족의 양육자 대상, 다양한 가족인식 개선, 아버지 대상 사업의 강화 및 확대 필요성이 이용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이용자 + 종사자: 상담(갈등해결중심)과 사례관리에 대한 사업강화 및 확대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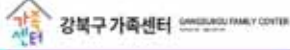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적용/ 저출생, 고령화 관련에 따른 가족사업 활성화 및 가족센터 역할 확장을 위한 사업 발굴


- ▶ 센터는 이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 ▶ 센터가 가질 수 있는 유연성과 주체성 그리고 선택과 집중은 어떤 요인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까?






가족센터 중사자 관점에서 보는 가족사업 수요조사 결과,
 이용자와 중사자 모두 가장 높은 수치로
 가족사업 활성화 및 가족센터 역할 확장을 위한 사업 발굴에서
 나타난 결과는
“가족스트레스 관리(이용자 89.0%, 중사자 90.0%)”임.





향후 가족센터가 발전하기 위해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2000년대 중반
공공 가족서비스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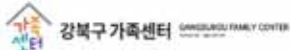
201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으로의 외연 확대


2020년대
진단, 선별을 중심으로 한
맞춤식 관리 시대

가족센터는 행사 중심의 기관 또는 보여 주기 식의 사업이 아닌 지역 내 가족의 건강성을 책임지고, 관리해 주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함. 이를 바탕으로 전문 가족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여김.




※ 박우철(2023). 2023 결혼집진 워크샵 자료집. 서울시가족센터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개발한 또는 개발 중인 위기 가족 진단 또는 현재 서울시 가족센터에서 진행 중인 검진사업(박우철교수 개발) 등 활용할 수 있음.
- 향후 지역 내 가족의 '가족관계 건강관리 체계' 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 진단 도구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람.
- 이를 통해 건강한 가족, 위험군 가족(초기 부적응), 위기가족으로 분류하여 각기 가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효과성 측정)이 이루어졌으면 함.



누구나
함께
함께하는
강북

- 그동안 통합을 거친 가족센터는 지역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정체성 확립 및 가족사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하고 있다고 여김.
- 그러나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들을 갖고 있고, 향후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와 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시대적 흐름에 맞는 가족센터의 변화 및 성장이 요구되는 시기라 여김.
- 이를 위해 가족센터만이 할 수 있는 뚜렷한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 구축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각 센터마다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가족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정말 필요함.



누구나
함께
함께하는
강북

감사합니다.



